

존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그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온전히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영적인 예배의 회복을 급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1

“코비드 중도 탈락/실종 교인” 주일 예배 참여 프로젝트 가동

라이프웨이, 팬데믹 기간 동안 모습을 감춘 교인들을 다시 복귀시킬 수 있는 4가지 대안 제시

현재 교회의 최우선 사역은 코비드 팬데믹 기간 동안 모습을 감춘 교인들을 다시 복귀시키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도, 교회가 소위 “코비드 중도 탈락자”를 회복시키기에 전력을 다해야만 한다.

이전의 많은 교인에게 전염병은 가끔 결장하기도 하고 출석도 하면서 지내는 대학에 가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COVID-19는 이전에 확립된 습관을 깨뜨리고 일부는 교회 예배 참석을 중단하게 했다. 몇몇은 떠나기로 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떠돌아다녔다.

그리고 젊은 성인이 되어 참석을 그만두고 교회에 다니는 모든 십대가 계속 떠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많이 교회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인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지역 회중과 다른 수단을 통해 실종된 사람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 교회에서 코로나로 인해 휴식을 취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도,

교회가 잃어버린 회원들을 되찾기 위해 직접 손을 내밀고 사람들이 다시 합류할 수 있는 쉬운 “출입구”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교회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단계가 있다.

놀랄 수 있는 한 단계는 예배나 설교를 위해 온라인과 비디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미국인 7명 중 1명 이상이 팬데믹 기간 일반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시청했다. 여러 면에서 온라인 예배는 교회의 새로운 현관문 즉 출입구가 되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은 온라인 예배가 직접 참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해야만 한다. 하트퍼드 종교 연구소(Hartford Institute for Religion Research)의 연구에 따르면, 전염병 기간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모두 제공하는 교회는 실제로 성장했지만 대면 또는 온라인 예배만 제공하는 교회는 감소했다.

그러면 실종된 교인들을 어떻게 집에서 나와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할 수 있을까? (How to Win Back the New Church Dropout?).



“믿음의 안경”을 끼고 세계 선교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TCC, 선교의 관심을 잃어버린 것 같은 복음주의자들에게 던지는 도전과 격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도전, 지상 명령을 지향하려는 우리를 낙담시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오늘날 세계에는 거의 80억 명이 살고 있으며, 세계 기독교 연구 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 Christianity)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그 중 28퍼센트가 복음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스도인 수는 모두 25억 명(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등 모두 포함)이고, 선교사는 43만 5,000명이다. 그러나 전체 그리스도인의 0.01퍼센트가 외국 선교사로 섬기고 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연간 총수입은 53조 달러이고, 해외 선교에 지출하는 금액은 520억 달러이다. 따라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수입의 0.09퍼센트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세계 선교에 지출하고 있다.

이 수치를 일반 가정에 적용해 보자. 이 통계에 따르면, 미국 그리스도인이 각종 기독교 사역에 지출하는 금액은 크리스마스 비용과 비슷하다. 해외 선교에 지출하는 만큼 우리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돈을 쓴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 복음화보다 애완동물을 위한 할로윈 의상에 더 많은 돈을 쓴다(When Did Evangelicals Stop Caring About Missions?).

이런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나와 같다면, 이러한 통계 앞에서 부끄럽고 우울하고 하여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부족한 수치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다. 그러나 숫자 뒤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주권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죄책감까지 느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수치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3면	4면	16면
시론 류은렬 목사	푸른초장 허윤준 목사	인터뷰 이행보 목사

예배를 다시 생각하라

당신의 교회 예배가 설교를 듣기 위해 좌석에 앉아 있거나 무대에서 장관을 보는 것에 거의 전적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많은 사람이 집안 소파에서 그것을 하기로 선택할 것이다. 사람들이 서비스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서비스를 변경해 나가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영화관과 비교했다. 스튜디오에서 극장에서 개봉한 당일에 재택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영화를 출시했을 때, 많은 사람이 집에서 보기를 선택했다. 당신은 그 경험의 일부가 되고 싶을 때만 극장에 갔다. 집에서 볼 수는 있지만 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당신 교회의 예배는 주로 정보 전달 시스템인가, 아니면 고성능 공연인가? 그렇다면 일부 사람들은 잠으로 같이 입고 시네마 가로질러 운전하는 불편함 없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결정했을 것이다.

일부 교회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의 말을 듣거나 놀라운 예배 밴드를 보기 위해 군중을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온라인 시청으로 대부분을 얻을 수 있을 때 누군가가 실제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가능성은 적다.

이것은 COVID-19 이전에 예배 참석자가 50명 미만인 소규모 교회가 이전 수준으로 가장 빨리 복귀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2월, 소규모 교회의 3분의 1 이상(37%)이 출석률이 2020년 1월의 90% 이상이라고 보고했으며, 18%는 팬데믹 기간 수치적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당시 미국 개신교 교회 전체의 22%가 자신의 교회가 2020년 1월 출석률에 가깝다고 말했으며 12%는 COVID-19 이전보다 출석률이 더 높다고 보고했다.



(3면으로 계속)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가운
(323) 737-7699
인터넷 소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목회자 집중 성경방 2022
대상: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신학생
기간: 2022년 7월10-8월15일 (주일/월요일에만 강의가 있습니다)
시간: 주일(5pm-8:20pm), 월요일(7pm-10:20pm) 방형: zoom
준비물: 성경책, 성경방 워크북(구약/신약)
등록비: \$100(Venmo ID: LALifePlaceMinistry)
문의: 박재니 전도사 (213-220-6729)
주관: 생터성경사역원 LA지부

“본 성경 강해 설교집을 통하여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전하고자 하는 설교자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 저자의 머리말 중에서 -



헤이용규 목사

2016년 11월 10일, '말씀의 거장' 이용규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1973년, LA 동부장로교회를 개척하여 43년 동안 강단을 지키셨습니다.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하라.”
이 가르침은 고인께서 제자이며 후임인 소자에게 가장 많이 남기신 말씀입니다. 한 평생 항상 주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며 아끼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하셨습니다. 성경 본문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시면서 설교에 전념하신 스승이십니다.
- LA 동부장로교회 담임 김정오 목사 -
「제 42권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해방」 머리말 중에서

헤이용규 목사

성경 강해 설교집을 보내드립니다.

(1973년도에 LA에서 동부장로교회 개척, 43년간 시무, 2016년 소천)



설교집 웹사이트 www.easternpresbyterian.church

설교집을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로 신청하시거나 이메일로 받으실 주소를 보내주시면 미국 내 모든 지역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설교집신청 LA 동부장로교회
담당: 유영아 전도사 (213)505-7831
신청 이메일 427030@gmail.com

LA 동부장로교회
Eastern Presbyterian Church
4270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3-3261

담임 김정오 목사
www.epcla.org

강해 설교집 목록

제1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제22권 승리의 신앙생활
제2권 아가서 강해	제23권 선한 목자와 양
제3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24권 위대한 믿음의 유산
제4권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제25권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제5권 썩지 않는 면류관	제26권 빌립보서 강해
제6권 스가랴서 강해설교	제27권 영원히 남는 생활
제7권 위기를 이기는 길	제28권 시온으로 가는 큰 길
제8권 하나님의 주권과 인생	제29권 베드로전후서 강해
제9권 뚝기서 강해	제30권 택함받은 백성의 축복
제10권 새 천년에 할 일	제31권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제11권 후회함이 없는 삶	제32권 간추린 신학
제12권 구원 얻는 자의 할 일	제33권 장차 올 영구한 도성
제13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제34권 위대한 사랑
제14권 감추인 보화와 진주	제35권 대살로니가전후서 강해
제15권 하늘의 시민권	제36권 큰 산아 평가가 되라
제16권 진정함 평화	제37권 견고한 신앙생활
제17권 하나님의 약속	제38권 영적 선한 길로 행하라
제18권 십자가의 도	제39권 그리스도의 승리
제19권 새벽을 깨우라	제40권 감찰의 영감
제20권 인간의 복된 사명	제41권 세미한 소리를 들으라
제21권 인생의 바른 길	제42권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해방

제 1권부터 제 42권까지의 방대한 설교를 색인으로 정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0여 편의 설교에 대한 INDEX를 소책자로 출판하였기에 함께 보내드립니다.

발행인 칼럼

포기를 포기하라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링 위에서 한창 복싱 경기가 벌어질 때 한 쪽이 너무 기울어져서 패배가 분명하거나 크게 부상당할 위험이 있을 때 링 밖의 코치가 흰 수건을 던져 경기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2회 전에서만 네 번의 다운이 있었다. 중계방송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이제 는 졌다고 생각했었다. 코치가 흰 수건을 던져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났을 정도이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3회전에 기적의 역전 KO승이 있었다. 1977년 11월 27일, 11전 11승을 자랑하던 파나마의 세계 챔피언 카라 스키야를 상대로 한 대한민국 홍수환 선수 이야기이다. 흰 수건을 던지는 시간이야 불과 1-2초이었을 텐데 그 날 만약 그랬다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회자할 4천 57라는 위대한 이야기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여 성공한 이야기가 지난 21일도 있었다. 그 소식을 듣고 이민 땅에서 많은 분이 그러셨는데 필자도 감격하여 많이 울컥했다. 대한민국산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두 번의 도전 끝에 성공적인 발사를 이룬 것이다. 날씨 등의 이유로 발사일이 몇 날 미루어지면서 살짝 걱정을 자아냈지만 숱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세계 7번째 자력 위성 발사국이 된 것이다. 과학계의 쾌거이며 국가적 자양이 아닐 수 없다. 과학자들의 눈물 어린 노력과 이와 연관된 기관들의 처절한 수고 그리고 이들을 뒷받침한 기업들의 헌신적 투자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실패의 자리에서 산적한 어려움 앞에서 힘들다고, 귀찮다고, 두렵다고 포기의 흰 수건을 던졌더라면 오늘의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 있었겠는가. 흰 수건을 던지는 포기가 없었기에 드디어 우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 기대감으로 벅차다. 포기하지 않고 일구어낸 일 후에 펼쳐질 긍정적인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인들의 포기하지 않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계속된다. KWMC,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회의회 흰 수건을 던지지 않았다. 1988년 제1회 선교대회를 시작으로 8회까지 이어져 오면서 한인들이 앞장서 세계 선교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나 팬데믹을 맞이하여 4년 주기의 대회가 이어지지 못했다. 주로 시카고 워튼 칼리지에서 4-5,000명 규모로 열렸던 대회가 대면, 장소, 재정 등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니 포기할 수 없었다. 그 9차 대회를 워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오는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온 인류의 소망 예수'라는 주제로 갖게 된 것이다. 상상을 초월한 비싼 항공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코치이신 예수님이 링 위에서 흰 수건을 던지시겠는가. 결코 그럴 일이 없으시다.

흰 수건을 던진 젊은이가 있다. 그의 영적인 관심은 대단한 것이었으나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현실에 미련 없이 포기의 수건을 던지고 역사의 무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포기를 포기하라. 순간적으로 끝날 흰 수건을 던짐을 멈춘다면, 짧게 끝날 포기를 포기한다면 앞으로 누릴 것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풍성하다. 주저앉고 싶은 일이 왜 한두가지 뿐이겠는가. 차리리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상황이 누군들 없겠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포기하셨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겠는가. 누가 장애물이 없다고 말하던가. 있다. 많이 있다. 장애물도 많이 있고 포기할 이유도 즐비하다. 그러나 포기를 포기하자. 고지가 바로 저기데 라고 이은상 시인은 외친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 역사의 능선을 타고 / 이 밤도 허위적거리며 가만 하는 겨레가 있다 / 고지가 바로 저기데 에서 말 수는 없다" 그렇다. 고지가 바로 저기다. 주님이 곧 오실 터인데 흰 수건 던지지 말자. 겨레여, 포기를 포기하자.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김재상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나그네를 선대 하라!”

BBC, 2022 국제 난민의 날 - 6월 20일, 맞아 난민 관련 용어 해설

지난 20년 동안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유엔(UN)은 출신국을 떠나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숫자가 2000년 1억 7300만 명에서 2020년 2억 8100만 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3.6% 정도 되는 규모다. 하지만 외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이주자, 난민, 이민자, 망명 신청자 등 각기 다른 용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정확히 설명하는 용어가 존재할까. 영국 서식스 대학교 이민센터의 살렛 테일러 부교수는 미디어가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언어에 관해 연구한다. BBC는 테일러 박사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용어의 뜻을 살펴본다(World Refugee Day: What is a refugee?).

이주민 먼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이주자(Migrant)'일 것이다. '이주자'란 일자라나 더 나은 생활 조건 등을 위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영국에 사는 어떤 사람이 올해 여름 몇 달간 스페인에서 일하기 위해 건너 간다면, '이주자'로 부를 수 있다.

테일러 박사는 "이주자란 용어는 현재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적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안전한 용어는 아니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용어의 의미는) 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이주에 관해선 조금 까다로운 수밖에 없다. 정치적 이주자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같은 특정 정권을 피해 이동하는 사람들을 뜻할 수 있다.

한편 테일러 박사는 "이민 물결, 흐름, 물려준다" 등 이주자를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에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표현들로 인해 이민자를 받은 국가 내에서 이들을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자

'이민자(Immigrant)'는 외국에서 영구적으로 살게 된 사람을 가리킨다. 감압으로 쫓겨나는 경우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이민을 선택한 이유가 아무리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불법 이민자와 합법적인 이민자 사이엔 큰 차이가 있다.

합법적인 이민자들은 정당한 서류 승인 절차를 통해 거주 허가를 받았지만, 불법 이민자들은 그렇지 않다.

한편 테일러 박사는 언론이 자국민이 다른 나라로 떠나는 '이민(Emigration)'보다 외국으로 부터의 '이민(Immigration)'을 더 자주 다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두 이민은

정말 별개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두 이민 사이의 유사점을 보지 못합니다."

난민

'난민(Refugee)'은 전쟁, 박해 또는 자연재해를 피해 출신국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가리킨다.

"난민은 그 지위가 매우 다르다"는 게 테일러 박사의 설명이다.

"누군가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순간 이들에게 특정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난민은 자신들의 통제권을 벗어난 상황에 놓이면서 궁지에 몰린 사람들입니다."

'망명 신청자(Asylum seeker)'란 타국에서 국제적 비호를 요청한 사람들을 뜻

하지만, 앞서 설명한 모든 용어를 합친 것일 수도 있다.

여기에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육지나 해상에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망명 신청자'라는 용어가 가장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게 테일러 박사의 설명이다.

"누군가가 망명을 원한다는 뜻은, 말 그대로 망명을 원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나 몇몇 국가의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일부 망명 신청자들의 합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망명 신청을 진짜와 가짜로 구분하는 모습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람들의 망명 신청은 물론 거절당할 수 있지만, 망명을 원한다는 사실 자체는 사실이니까요!"

“믿음의 안경” 을 끼고...

우리는 세계 역사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한 확신을 지금 잃어 가고 있다.

바로 이런 현실이 오늘날 제자도를 방해한다. 수 세기 동안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역사 속에는 세속적인 세상을 초월하는 목적이 있다고 믿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역사에는 의미와 방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은 성삼

위 하나님의 내적 조인(창세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의 합의)에서 나온다.

창조와 함께 시작된 역사는 인류가 죄에 빠지면서 나선 형으로 흘렀고, 잃어버린 자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에 의해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운행하셨다.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달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

시고, 그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명하신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 말이다. 역사는 구주의 재림과 함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으로 끝이 날 것이며, 구주와 함께 빛나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과거에만 해도 대부분 그리스도인에게 실제이고 진리였다. 바로 이런 사건이 우주를 앞으로 이끌어 가는 동력이었다.

그러한 이런 믿음은 대부분 서구 세계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다. 적어도 세속 대학, 엔터테인먼트 산업 및 대부분의 미디어에서 문화를 형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이다.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미래를 건설하라.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라. 무슨 이야기를 할지 주의를 기울이라.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라. (3면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겸손함으로 헌신하며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해낼 귀한 차세대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을 꼭 찾게”

요셉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요셉장학재단(The Joseph Scholarship Foundation)이 목회자 양성을 위한 2022년도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요셉장학재단은 퀸즈장로교회를 개혁해 미주한인사회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시킨 고 장영준 목사의 목회와 사역을 기리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신청자격 신학교 재학생 (M.Div, Th.M, D.Min, Ph.D)

신청서류 1) 목회에 대한 사명감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신앙고백문 (1장, 한영 가능) 2) 추천서 2통 (술석교회 담임목사 1통, 재학중인 신학교교수 1통) 3) 재학 중인 신학교의 성적 증명서 4) 이력서 (사진포함)

신청 접수처 우편: 36-14 165th St. 3AN, Flushing, NY 11358 이메일: thejosephscholarshipfoundation@gmail.com

요셉장학재단 대표: 장미은

신청마감 2022년 7월 15일(금)

문의 정기태 목사 (917-733-7387)



장학생에 선발된 학생은 재단에서 전화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 합니다. 선발된 장학생은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 해야 합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퀸즈장로교회에서 8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선발인원: 10명내외 개인당 2000불 지원

코비드 중도 탈락/실종 교인...

(1면에서 계속)

교회에 대해 설교하고 가르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람들은 온라인 보기에서 직접 참여로 전환하려고 할 때 스트리밍 서비스를 계속하는 것은 실제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과의 연결 라인을 끊어 버려서는 안 된다. 대신, 실종된 교인들이 온라인에서 시청하고 교회에 대해 그리스도의 몸매 대해 이야기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온라인 예배는 엄밀히 말하면 온전한 교회공동체의 표상이 아니라 점을 선명하게 가르쳐야만 한다. 많은 "서로", "다 같이" 하자는 명령에는 대면 상호 작용이 필요하다.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여 이러한 시청자를 환영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직접 참가자가 되도록 초대하고

권고해야 한다.

2022년 초 현재 목회자 5명 중 3명(60%)은 온라인 예배를 재개하거나 대면 예배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 온라인 예배자들을 권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뮤니티와 함께 리더

집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 형성이다. 이것은 작은 교회가 큰 교회보다 더 빨리 출석률을 회복하는데 기여하는 요인일 수 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더 많은 가족 관계와 종종 지역 사회의 깊은 유대를 가지고 있다. 더 큰 회중은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할 수 있으며 목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실종된 교인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작은 수준에서 연결된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소그룹 리더일 수도 있다. 부모의 경우 어린이 사역이나 학생 사역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다. 교회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적인 연결과 지역 사회를 위한 길은 비디오 서비스를 통해 집에서 재생산할 수 없으며 실종된 사람들을 다시 연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개인화하기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카톡을 통해 연락하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텍스트로 시작할 수 있지만, 디지털 수준에서만 연결을 유지해서는 역부족이다.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만들어야 한다. 당신은 사람들을 일시적인 디지털 교환을 넘어 물리적인 참여로 옮기려고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메일보다 더 친근하지만, 문을 두드리는 것보다 덜 방해가 되는 것을 위해 엽서나 편지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다.

아이들은 손으로 쓴 메모를 좋아한다. 사실, 우리는 모두 정

구서와 정크 메일 외에 우편함에서 무언가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여름 동안 친구들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아이들과 학생들의 열망을 활용해야 한다. VBS 시즌이다. 주일학교 교사, VBS 지도자, 아동 사역 종사자 등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동 및 가족에게 개인 초대장을 보내자. 실종 가족을 다시 참여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기타 행사를 계획해본다.

결국, 이전 교인과 만들 수 있는 다른 창의적이고 디지털이 아닌 연결 수단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모든 COVID 교회 중퇴자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일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셔서 그들이 지역 교회의 다른 신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자!



시론

공동체의 힘



류영열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최근에 미시온 신학교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님들과 만남을 위해 필라델피아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이 지역을 잘 아는 목사님이 한 곳을 가리키며 이탈리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그 지역에 대해 읽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집단촌을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탈리아 로제토 발포르토레라는 마을에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지역 이름도 훗날 '로제토'라고 바꾸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스투어트 울프라는 오클라호마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한 의사 때문입니다. 그가 이 지역의 농장에서 한 여름을 보내면서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로제토 지역에 사는 이탈리아인들은 1950년대 후반에 65세 미만 사람들이 심장마비 환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콜레스테롤이나 심장병 예방을 위한 치료제가 개발 전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심장마비는 65세 미만 남성에게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울프 교수는 구체적으로 로제토 마을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제토 사람들은 55세 이하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없었으며, 65세 이상 심장마비 사망률은 미국 전역에 비해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울프 박사는 로제토 사람들이 먹는 식생활, 운동성, 유전적 요소,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연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것도 로제토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좋은 건강요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섭취하는 칼로리의 41퍼센트 이상을 지방에서 섭취하고 조깅을 하는 사람이 없고 사람마다 비만과 싸우면서도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 사람들의 비결은 로제토 마을 자체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역에 어울려 사는 사람들은 서로를 이웃처럼 방문하고 길을 걷다가 마주치면 그리운 친구를 만난 듯 서로 담소를 나누고 서로서로 만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루고 있는 지역은 거대한 가족 공동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모두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도우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 자체가 건강한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로제토 마을을 지나면서 진정한 공동체가 주는 능력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탈리아 한 작은 마을에서 낯선 땅으로 이주하여 100년 이상을 살아왔지만 그들은 한 민족과 한 문화 그리고 한 가족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달라졌지만 로제토 주민의 삶을 역사로 건너 오를 때까지 소중한 삶의 교훈을 전해 줍니다.

우리 각자는 다양한 환경을 배경으로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현재 속해 있는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전도, 기도 등 다양한 훈련 과정을 통해 더 깊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를 이루는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공평한 보상을 주며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는 것에 궁극해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된 천국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때 경이로운 그 공동체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성도의 삶을 지상에서도 이룬다면 참 좋겠습니다.

preachchrist@kcpc.org

"믿음의 안경" 을 끼고...

(2면에서 계속)

진짜 죽어야 할 정도로 큰 죄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이런 철학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이 사명감을 상실하는 건 세속주의 인간 역사와 운명에 대한 해석을 수용하기 때문이다. 진짜 복음,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이 없을 때 우리의 행동은 줄어든다. 타고 즐기는 게 목표라면,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객관적 가치와 영원한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

유명한 시인 에밀리 디킨슨은 1800년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바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나간 시대에 대해서 그녀는 이렇게 썼다:

“전에 죽을 때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우편 손으로 갔다. 그런데 그 손이 지금은 팔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믿음의 포기는 행동마저 하찮게 만든다. 아예 아무런 빛이 없는 거보다는 희미한 도깨비불이라도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약화가 우리가 사는 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청지기로서 시간

과 재능과 재물을 관리해야 할 사람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대가를 치르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하며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확신을 굳건히 하자.

짧은 교회사 공부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예수께서는 승천 당일, 사도들에게 더 많은 제자를 삼으러 나가기 전에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4,8).

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성장했다. 고대 기독교 성장률에 대한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가장 보수적인 학자도 서기 150년에는 약 4만 명, 200년에는 20만 명 이상, 300년에는 60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한다. 성령은 더 많은 제자를 준비시키는 제자를 계속해서 일으켰다. 그중 소수는 “땅끝까지” 여행하여, 그 후 몇 년 동안 교회 성장을 가속화했다. 1900년까지 교회는 전 세계 인구의 거의 35퍼센트인 6억 명을 돌보았다. 많은 사람이 다음 세기가 세계 기독교의 황금시대인 “기독교 세기”가 될 거로 예측했다.

물론 기독교 전파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른바 중세 시대에 기독교 세계(Christendom)의 지리는 이슬람 정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아 심하게 축소되었다. 500년에 기독교는 세계 인구의 5분

의 1을 차지했으며, 인구 통계학적으로 지중해 동부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150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더 작은 부분을 차지했으며(천 년 전보다 약 2퍼센트 적음), 그때 전 세계의 무계 중심은 유럽의 심장부에 있었다. 실제로 전체 그리스도인의 거의 92퍼센트가 유럽에 살았다. 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놀라운 비율이다. 그러나 서양 근대사를 거치며 신앙이 더욱 약해졌고, 그에 따른 불가피한 세속화에 관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은 하나님의 죽음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18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흠이 없고 썩지 않는다(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서유럽인 사이에서는 신앙이 쇠퇴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세계 여러 곳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현대 선교 운동이 한창이던 1900년에 이르러, 교회는 1500년에 비교해서 일곱 배가 더 커졌다. 그러나 20세기, 적어도 전 망처럼 서구에서 “기독교 세기”가 되는 건 실패했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엄청난 인구 증가, 대부분의 유럽 지역에서 기독교 헌신의 감소,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이슬람의 증가로 인해 기독교는 20세기 동안 전 세계 인구의 1퍼센트 이상이 감소했

다. 북반구에서는 인구의 82퍼센트에서 41퍼센트로 급감했다. 그런데도 어떻게 전체적으로 겨우 1퍼센트만 감소했을까? “2/3 세계”에 해당하는 여러 지역에서 기독교 신앙이 성장했고, 1900년에 약 9,900만 명(인구의 18퍼센트)이었던 신자가 2000년에는 거의 12억 명(인구의 59퍼센트)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실로 20세기가 기독교 세기가 되었다. 그리고 21세기는 서로 다른 문화가 다양하게 제자도에 참여하기에 좋은 시대가 되었다.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움직임에 동참하자. 장 칼뱅이 말했듯이 믿음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으로 시야를 넓히고 세계사를 바라보자. 국내외에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자. 돈이 없거나 해외 선교에 참여할 여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세계 여러 국가의 국민이 우리 곁으로 왔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당장 이 민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 지역 교회의 선교 사업에 협력하고, 또 어디에 있든지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주님은 재림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사랑하면서 사역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그분을 맞을 수 있기를 바라신다. 구속의 역사에서 주님은 우리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길 원하신다.

‘기독교 문화사역’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고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세요!

순삭성경 Hisfinger Media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사역부 히즈핑거는 기독교 콘텐츠제작, 기독교 굿즈제작 등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구매문의, 광고문의, 사역문의는 info@chpress.net 혹은 718-886-4400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 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배이사이드장로교회)



내가 불평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어느 미국인이 무명으로 다 음과 같은 글을 쓴 것을 한 잡 지에서 읽게 되었다. 그리고 느끼는 바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오늘 버스에서 나는 금 색 머리를 한 사랑스러운 여성 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몹시 부러웠습니다. 그녀는 너 무 멋진 모습으로 밝고 즐겁게

보였기에 나는 세상은 공평하 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 나 그녀가 갑자기 일어나서 목 을 떨며 복도를 걷는 것을 보 았습니다. 그녀는 한쪽 발이 없어 목발에 의지하고 있었지 만, 미소를 지으며 내 옆을 지 나갔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불평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

서. 저는 두 발이 있고 온 세상 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기 때 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캔디 가게에 들렀을 때, 그 가게에 서 일하는 남자 청년은 아주 인상이 좋은 매력을 가지고 있 었습니다. 그는 활기찬 기운을 발산하는 것 같았고 그의 태도 는 매우 친절하고 따뜻했습니 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다음 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친절한 섬김을 받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때 그가 돌아서서 “오,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가 맹인인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 는 오 하나님, 제가 불평하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는 잘 보이는 두 눈이 있어 이 세상을 자유롭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길을 걸다가 파란 눈을 가진 멋진게 생긴 소년을 보았습니

다. 그런데 그는 서서 다른 사 람들이 노는 것을 지켜만 보면 서 함께 놀지 않는 것이었습니 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다가 가 “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 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무 말 없이 앞만 바라 보았고, 나는 그가 듣지 못한 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 하 나님, 제가 불평한 것을 용서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귀가 두 개 있어 세상의 모든 것을 들 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에게도 내가 가고 싶은 곳으 로 나를 데리다 주는 발이 있 고, 석양으로 물든 하늘을 눈 으로 볼 수 있는 두 눈이 있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나는 참으 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제가 불평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글은 아마도 누구든지 읽 으면 무엇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 준다고 생각된 다. 그것은 엄청난 축복은 이 미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에 있다고 알게 되 기 때문이다. 눈과 다리, 손 그 리고 머리를 포함하여 모든 것 이 정상이라면 그것은 대단한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이 다. 만일 그중에 하나라도 손 상을 입어 제 기능을 못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편함을 우 리에게 가져다주고 일생을 고 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모든 지체가 정상이라면 그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장애인들 이 불행하다는 말은 아니다. 그들 나름대로 무엇인가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 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장애 없이 살아가 게 되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엄 청난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의 지체는 점점 망가져 갈 것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떨리는 다리 로라도 걸을 수 있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소리가 들려 사랑 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하나님 이 지으신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중에 있 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 이다. 그리고 특별히 온전하게 사고할 수 있는 머리가 있다면 더더욱 감사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보는 것과 듣는 것 그 리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것을 온 마음으로 즐기며 하나 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 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허윤준 목사

(뉴욕새생명장로교회)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에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 보시며 인정하신 그의 삶을 바라 보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 말년을 맞이하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 니 너무나 큰 감사함이 넘쳐서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몰라 마음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깊은 사랑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1.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 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니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깨달 은 것이 한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 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2절에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기 위해서 몸을 굽히시는 귀를 기울이시는 자상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나의 음성과 나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께 큰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 위대한 왕

난치것 어려움도 피하면서 잘 살아도 관찮을 텐데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인식하며 그렇게 어리석고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 다.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 첫째, 원수된 사울 왕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쁨 부은 종이라고 죽이기를 두려워합니다. 둘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 죽게 한 엄청난 죄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에 변명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셋째, 요나단과의 깊은 우정과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던 은혜를 기억하여 사울의 집안이 다 망하고 죽었음에도 끝까지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을 찾아내어서 불구임에도 왕자와 같이 대접하고 선대 하여 재산까지 물려주는 아

반하기까지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부어주신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큰 은혜와 축복을 다윗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은혜 갚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먼저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의 사간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한 평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길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갚는 삶인 것입니다. 셋째는, 서원한 것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갚는 것입니다. 서원이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이든지 큰일이든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평생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갚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토록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인식하고 사는 삶을 살 수 있음에 감사했고, 한 평생 하나님께 은혜를 갚고자 힘써 살았습니다. 정말 멋있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감격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은혜 갚을 영광의 기회를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여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삶을 다바쳐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다윗과 같이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다하여 사랑하며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리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 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평생토록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인식하고 사는 삶을 살 수 있음에 감사했고, 한 평생 하나님께 은혜를 갚고자 힘써 살았습니다. 정말 멋있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감격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은혜 갚을 영광의 기회를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여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삶을 다바쳐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다윗과 같이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다하여 사랑하며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리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 합니다. 할렐루야!

jameshur63@hotmail.com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16:1-14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렇게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이렇게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사실에 대하여 다윗은 너무나 신기해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3장에 보 시면, 마지막 유언을 남기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세의 아들이요, 하나님께 높이 세워진 자요,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여찌 그리 큰지요?”라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요, 장군이요, 지혜자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어 리석어 보일 정도로 지켜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평생 기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단 한 것 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이 끝까지 주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결코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 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 니다. 첫째는,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확신하는 것입 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누구에게 축복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내 평생을 다 하여 기도하겠노라 말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의 크레딧을 쌓는 것이

니다. 저는 늘 어려울 때마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 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필요 이상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채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평생 기도할게요!”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이다” 다윗은 아주 순진하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의식하며 일했습니 다. 그래서 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어 보 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좀 처세술도 있고,

담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 습니다. 다윗은 항상 모든 일을 행할 때 여호와께서 앞에 계심을 의 식하며 행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 립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순진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 아가게 될 것입니다. 3. 평생을 하나님께 은혜 갚 으며 살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 기 때문입니다.

전 가지, 만 가지 자랑할 것이 많은 다윗왕이었지만, 다윗 왕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 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목동 의 아들이었고,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된 것이고, 나 같은 지렁이 같 은 사람을 귀하게 써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한다”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생각 하는 것 하나하나 말하는 것 하나하나 그리고 일하는 것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며 기쁘시게 했습니 다. 다윗은 늘 내가 무엇이관 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 지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고 감사하며 찬송하였던 것입 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 음성과 내 간구”는 복수형인데 이 말 씬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해와 복을 가슴에 품으면서 감 격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을 고백할 수 밖에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

다. 저는 늘 어려울 때마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 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필요 이상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채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평생 기도할게요!”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이다” 다윗은 아주 순진하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의식하며 일했습니 다. 그래서 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어 보 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좀 처세술도 있고,

본문 12절로 14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와 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 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세상의 짐승들도 자기 주인에게 은혜를 갚으며 고마워하 며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배

다윗은 평생토록 기도에 응 답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인식하고 사는 삶을 살 수 있음에 감사했고, 한 평생 하나님께 은혜를 갚고자 힘써 살았습니다. 정말 멋있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감격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은혜 갚을 영광의 기회를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여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삶을 다바쳐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다윗과 같이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다하여 사랑하며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리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 합니다. 할렐루야!

jameshur63@hotmail.com

모이는 교회, 모으는 목회

교단의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웨비나(웹과 세미나의 혼용)에서 강의했다. 짧은 시간 동안, 목회적 관점을 가지고 코로나를 지나며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에 대한 소견을 나누는 일이었다. 준비하면서, 여러 시대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며 우리의 목회를 논하지만, 실제 특별한 것이 없지 않나? 하는 결론을 얻었다.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우물들을 다시 파내며 물을 얻었듯이, 시대나 상황 조건이 달라서 강조되는 것이 다를 뿐, 목회는 예나 지금이나 특별히 다를 것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든다면, 한국 목회, 이민 목회, 특수 목회 등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인다고 하여도, 주일을 마음대로 변경할 것도 아니고, 주일을 지키는 방법이 달라질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핍박과 박해가 심각할 때는 지하무덤에서 해골을 옆에 두고도 예배드리지만, 늘 우리의 신앙 기준이라는 것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몸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예배>를 위

고, 말씀이 나를 꺾어야 하는데, 내가 말씀과 예배를 평가하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이다. 신앙이 무엇인가? 주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나도 싫어요, 그렇게 해야 정상일 텐데, 모든 것을 자기가 싫으면 다 좋은 것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편리주의는 이기적 개인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두 번째 사고의 흐름이다. 그러나 개인주의는 결코 기독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는 것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성경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행 16:31)는 말씀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의 삶은, 반드시 그 선한 영향력이 집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과 이웃들에게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대로 예수 믿은 사람, 참 예배의 사람들은 그 이웃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며, 삶 속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

회를 약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는 비행기에서조차 탈 마스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교회는 그 회집에 있어서 이견도 많고 의견도 많고, 여전히 예전 같은 회복의 길을 멀리 보게 만드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질문해 본다. '신자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또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절로 하게 된다. 단순히, 에클레시아의 개념 속에서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정의만으로는, 온라인 시대를 지나가며 지극히 '편리주의, 개인주의, 상대주의'에 몰든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기에는 아쉬움이 아주 많다.

구별된 장소로서의 교회

성경은 구별된 장소로서의 교회를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다. 구약의 성전과 성막, 회당의 역할과 신약시대 교회의 역할을 연하여 생각하여 볼 때, 굳이 신학적인 이견을 따져보지 않아도, 이들을 함께 한가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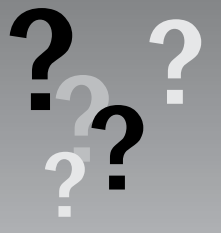
신앙생활의 기본, 주일예배

신앙생활의 기본은 '모여서 예배하고, 흠어져 전도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서, 흠여짐을 강조하는 교회와 개인은 결코 바른 신앙의 원리 가운데 세워질 수가 없게 된다. 특히, 흠여짐을 정당화하면서 '교회'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것을 본다. 예를 들면, 구역을 (지역 교회 혹은 마을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영상물을 올리면서는 (티비 교회)라고 칭하거나, 가정을 교회로 칭하면서, 정한 시간에 구별된 모임으로서의 예배를 위한 교회의 정의를 자꾸만 희석해 가는 것을 보게 된다. 어떻게 교회라는 이름을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게다가, 오늘날은 예배드리는 날로서의 '주일'의 개념도 희미하게 만들어 가는 것을 본다. 예를 들어, '토요 주일예배'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개념을 무색하게 하면서 교회 부흥을 주동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내용인즉, 주일 예배를 토요일 오후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신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목사입니다. 이제 사명자로 개척교회를 시작하려 하는데 목사가 올바른 목회를 하려면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지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에서 K 목사

A: 16세기의 윌리엄 퍼킨슨이란 목회자는 "목회 소명"이란 책에서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좋은 범용기는 열 사람 중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하고 / 좋은 의사는 스무 사람 중의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하고 / 좋은 목회자는 1000사람 중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다."라면서 그래서 좋은 목회자가 되려면 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인격을 유지하기 위해, 말씀 묵상과 연구와 가르침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한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1) Be holy - 목회자가 자신을 죄와 더러운 것에서 성결케 해서 거룩한 인격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 문화는 음녀 문화이기에 인터넷으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유혹하기에 성도들이 이것과 싸우는 데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세상의 음란과 호색을 멀리하고 자신의 경건 유지를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한다. 왜냐하면, 목사가 경건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2) Meditate the Bible - 성도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 말씀 묵상과 연구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구약의 학사 에스라는 에스라 7:10 절에 "여호와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율법연구와 율법을 가르치는데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3) One man Vision (원맨 비전)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앞으로 목사님은 많은 교인과 큰 교회를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목회의 중요한 원칙은 한 사람, 한 인격의 가치를 중시하고 한 영혼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누가 한 사람 데오빌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두 책을 써서 보냈습니다.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행적입니다. 이 두 책이 신앙 성경 전체의 반 정도가 됩니다. 누가는 역사가로 엄청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여 평생의 자료를 수집하여 한 사람을 위해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은 개척하시려는데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한 사람 한 영혼에 나의 모든 것을 거시고 바치십시오. 개척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외로운 길이요 경제적으로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며 시작하십시오. 주님과 한 영혼을 위해 생명을 걸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일군을 보내주시는 것이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이요 목회의 보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명자로 담대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가십시오.

집기 하나도 소중히 여기며 신앙생활을 했다. 게다가 '교회 가면 예수님 기다리신다,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난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넘어져도 교회로 넘어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충성했던 많은 이들이 주님 만난 것을 간증하고 있지 않은가! 우짜무라 간조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과거 무교회주의 운동의 결과가 어떠한가? 10년이 지나도 선교사님들이 세계 10명을 베풀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로 모이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로 몸이 오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로 몸이 오는 것이 믿음과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신학교 정원이 줄어든다고 한다. 미주에서는 영어권 사

davidnje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모이는 교회, 장소적 교회의 회복

- 정한 시간, 정한 장소, 몸이 오는 신앙-

함아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목회의 중심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강조점이 달라질 뿐이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목회를 제대로 감당하고자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종말 시대의 끝자락을 살아가는 때에는, 무엇보다 '모이는 교회, 모으는 목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모임을 폐하는 이들의 모습을 역행하는 목회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대책 한 가지를 말한다면, 모이게 하는 '장소로서의 교회'를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편리주의, 개인주의, 상대주의

코로나를 지나면서 특별한 목회적 현상을 설명하고자 할 때, 먼저 이 시대의 반 신앙적인 사고 형태 몇 가지를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첫째는 편리주의의 득세이다. 주일에 불편하게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있는가?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영상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침대 혹은 소파에 아주 편한 자세로 앉아 예배를 시청 분석 판단하는 예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실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 헌금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예배가 마칠 즈음이 되면, 은행 아카운트를 열어서 헌금을 송금한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참된 예물일까? 그날 은혜를 받았으면 많이 하고, 은혜를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면 헌금은 하지 않으려고 했던 말인가?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된다.

예배를 통해 나를 복종시키

는 마음을 자연스레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개인주의는 기독교 신앙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세 번째는 상대주의적 경향이다. 예전에는 필요한 정보나 신앙의 지식을 목사님을 통해 분별 되게 공급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생각을 먼저 정해둔 채, 자료들을 이리저리 모아 자신의 사상을 대변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다. 게다가 인터넷 영상시대를 통해, 설교를 마치 어떤 원고 발표문처럼 서로 비교하며 자신을 심판관처럼 세워두고는, 좋고 나쁨을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심화하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중의 말씀은 그저 설교자의 의견(Just his opinion)에 불과한 것이고, 자신도 충분히 목회자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더 이상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없으며, 마침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변화의 아름다운 역사도 맛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교회에 대한 관점회복

이러한 문제를 벗어나 온전한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 가운데 '교회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흔히 교회가 무엇인가? 질문하면 아주 쉽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구원 받은 사람들의 모임'에 방점을 두고 말한다. 이처럼 모임 자체를 강조하는 '에클레시아'의 개념과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예배의 활성화'가 장소로서의 교

회에 나타난 장소로서의 교회를 생각해 보자. 주의 성전에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대하 7:16)고 했다. 다윗은 누군가 자기더러 예배드리러 가자고 말하면, 그 소리에 마음이 기뻐다(시 122:1)고 말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시 84:4)고 한다. 신약으로 건너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행 1:4)고 장소를 지정하셨다. 그곳이 어디인가? 마가의 다락방이다. 곧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장소이다. 게다가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서신들과 복음증거의 내용을 통해,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를 바르게 세움으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곧 천상의 교회 원리를 드러내려 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성경 자체의 변증을 보게 될 때, 참된 교회의 이해를 위해서는 에클레시아의 개념뿐 아니라, 장소로서의 교회에 대한 관점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보이는 것은, 늘 흠여지는 교회를 강조하는 내용들이다. 혹자는 코로나 시기에 드러진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는지?를 질문한다. 매우 어리석은 질문이다. 박해가 있으면 해골을 옆에 두고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 최선의 예배이다. 그런데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한계 속에 드러진 예배를 일반화시켜,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를 모여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것의 제한된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저 핑계할 수 없는 편리주의, 악하고 게으른 것에 불과한 것이다.

에 드리고, 주일은 지역의 다른 교회를 찾아가서 봉사하라는 사역이다. 아주 이상한 개념이다. 이민 사회에서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영상예배를 드리는 이들 가운데서, 한국의 주일 예배를 이곳 미주에서 토요일 저녁에 영상예배로 시청하고 주일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한국의 영상이 워낙 탁월하니 그렇게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낯자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던 말인가?

토요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파송하는 교회가 정말 이웃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진정한 마음, 과연 예배받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내용일까? 결코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이웃을 돕기 원하는 마음이 진정한 이라면, 토요일에 드릴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교회를 분립하거나 성도들 파송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한마디로, 주일의 개념을 왜곡함으로써, 교회 중심의 생활을 흐트러지게 만들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가는 일들을 양산하게 된 것이다.

모이면 되고, 안 모이면 안 된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다. 어디서나 모이면 된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다. 예배로, 교회로 모여야 한다는 말씀이다. 이를 위해 장소적 교회가 회복되어야 한다. 빌딩 지상주의를 말함은 아니다. 빌딩 자체는 거룩한 교회가 아니지만, 정한 시간에 구별된 장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변수(變數)

6월 15일 발사예정이던 누리호가 날씨 탓으로 하루 연기 되더니 조금 전엔 센서의 이상으로 발사 자체가 잠정 연기되었다는 소식이다. 최고의 기술자들이 37만여 개의 부품을 조립하여 만드는 우주로켓인 지라 전문학적인 자금이 투자될 뿐 아니라 수많은 변수도 예측해야 한다. 아주 작은 변수로도 성패(成敗)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로운 전염병으로 홍역을 치른 지구촌이었으나 코로나라는 변수는 예측하지 못했다. 전염성이 강하고 빠른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차단하지 못해 통제 불능의 팬데믹을 겪으며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에 자신의 건강을 맡겨야 하는 사태를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은 꿈엔 들 뵈지 못했다. 예측 불가였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5300만이다. 나라의 살림살이 안에는 인구수 이상의 변수가 언제나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

며 운영해야만 한다. 세계인구가 78억이면 최소한의 변수가 인구 이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변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 변수를 예측하지 못하면 다스릴 수 없는 까닭이다. 변수의 예측은 지혜나 똑똑함으로는 하지 못한다. 바울이 되기 전의 사울은 빠진 것이 거의 없었다. 그가 자랑하듯 잡담의 극치인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으로 슈퍼 금수저였다. 집안 좋고 학문 좋은 그였다. 그런 사울이었으나 자신이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 앞에 너부러질 줄 몰랐고 그것이 자신이 인생을 백팔십도 바꾸어라 고는 예측 불가였을 것이다. 약한 것을 자랑하니? 제정신이라고 스스로 몰어도 모자랄 변수가 그 자신에게 일어났다. 바로 예수의 변수였다. 그러자 그는 이제껏 짐이 마르게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분토(糞土)와 같은 배설물로 여긴다며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

큰 자 사울이라는 허울을 쓰고서 결코 볼 수 없었던 진리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작은 자 바울이 되어서야 알아냈다. 변수의 정의는 무엇일까? 알아챌 수 없음이다. 따라서 변수는 예측 불가다. 그러나 천지 만물의 주재이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전지(全知)는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하늘에 샅대질하며 '... 내 주먹을 믿겠다'라는 잘난(?) 사람 중에 자신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는 자는 없다. 전능(全能)은 다 할 수 있을 뿐 못 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다. 사람 중에 이런 자는 없다. 사람의 생사화복(生死禍福)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을 뿐이다. 의인(義人)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 천명하듯 사람 중엔 전지자도 없고 전능자도 없다. 그래서 변수가 존재한다. 그러나 전지전능하

신 하나님께는 변수가 없다. 모르는 것이나 못 하는 것이 없으니 어찌 변수가 있으랴. 그래서 변수는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몫이다.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19x19 바둑판의 변수가 2016년 1월 20일 완전히 계산되었다고 한다. 대략 10의 171제곱의 수라고 한다. 이걸 계산하는데 15TB 용량, 8-16코어, 192GB의 램을 가진 서버가 몇 달 동안 계산해야 한다고 하니(바둑의 변수 인용) 인생의 변수는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이는 사람의 두뇌나 용량으로는 계산 불가다. 이런 사람의 변수는 오직 변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만이 다스리실 수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예측(豫測)도 없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예측이 왜 필요한가?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절대 이유다. 사도 바울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하다. 어차피 사람으로는 불가능하

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오늘을 처음 산다. 이미 살아본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로 다시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오늘을 처음 산다. 살아보지 않은 오늘이나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변수가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성경을 통해서만 그나마 가능하다. 사람이 지닌 변수로 인해 불확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이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변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변수가 없으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가 말씀하시는 것에 미련하도록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들려주신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행동 없으면 회개 없다" 미 남침례회의 결단

홀로 아이를 키우는 줄스 우드슨씨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 있었습니다. "역사적 순간을 현장에서 보고 싶다"며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는 그녀는 역사가 실현되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날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세계 최대 교단인 미 남침례회(SBC)는 14일과 15일 이곳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된 안건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지역교회 대표인 7000여명의 메신저들이 노란색 투표용지를 일제히 들어 올리는 순간 우드슨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메신저들은 성적 학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두 가지 권고 사항을 채택하는 데 압도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성적 학대 혐의를 받는 목사와 교역자를 추척하는 방법을 만들고 교단의 추가 개혁을 감독할 새 TF를 발족한다는 내용입니다. 포क्स뉴스와 NBC 등 언론은 '남침례교의 새로운 역사적 순간' 등 의미를 부여해 보도했습니다.

결과를 내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단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며 조사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TF를 이끈 브루스 프랭크 목사는 총회 기간 메신저들을 만나 개혁을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선교에 어려움을 준다"는 우려에 "이리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게 선교"라고 설득했습니다. 채택된 내용에 아쉬움도 있습니다. 생존자 보상, 교회 대응 방안 등을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는 생존자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프랭크 목사가 투표 결과를 '최소한'이라 표현하며 "SBC 문화를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본 이유입니다.

우드슨씨는 언론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작지만 건강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저자인 베스 무어는 자신의 SNS에 "열왕기하 2장 1절을 수없이 읽었다. 엘리야에게 하셨듯 주님은 그의 일을 하셨다"고 적었습니다. SBC는 학대에서 살아남은 이들을 '피해자'(victim)가 아닌 '생존자'(survivor)라 표현했습니다. SBC 결정이 세계 교회에 전 달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프랭크 목사의 말입니다. "행동이 없으면 회개도 없습니다."

에너지 불모 잡은 푸틴...국내정치 위기 물리는 EU 정상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에너지'를 볼모로 잡아 유럽 각국 정상과의 정치적 상처가 깊어지고 있다. 각국 정부는 앞다투어 에너지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쏟아내 선거에 임하고 있지만 돌아선 지지층이 다시 돌아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선거를 앞둔 나라들이 처할 상황을 분석한 보도를 내놨다. 프랑스는 당장 19일 총선 결선을 앞두고 있다. 독일은 10월 민심 이정표로 불리는 니더작센에서 주의회 선거 예정이며, 이탈리아도 다음 해 6월 총선 일정이 잡혀 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가장 먼저 푸틴이 휘두른 '에너지' 채찍에 민심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280억 달러(36조원) 규모의 저소득층·기업 지원 정책으로 유권자들의 성난 마음을 달래고 있다.

최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연립정당 '앙상블'은 의회 과반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는 점을 미뤄볼 때 상당수 지지층이 몇 달 만에 이탈할 셈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가스·전기료 상한선을 설정하고 휘발유 가격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 등 지원 정책을 통해 지지층을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전 2018년 말 에너지 급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노랑 조끼 시위'를 촉발시킨 경력이 있어 이번 대책에도 지지층 불감직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른 국가도 유가 대책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했다. 일시적인 조치였으나 정부는 정세를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브뤼겔은 프랑스·독일이 에너지가 상승 대책에 투입하는 재정이 자국 전체 경제규모의 1%를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이 규모가 2% 이상이고, 그리스는 3%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러시아 거대 가스공급 국영회사 가스프롬은 이날 터키 스트림의 두 방향 대형송유관의 가스공급을 21일부터 28일까지 중단하기로 발표했다. 가스프롬은 예정돼 있던 연례 안전점검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예고대로 일주일 만에 해제될지 유럽국가는 불안해 하고 있다.

중국, 봉쇄에 질렸다, 탈출이다

끝을 알 수 없는 봉쇄 정책에 질린 중국인들 사이에서 중국 탈출법을 연구하는 '유향'(潤學) 열풍이 불고 있다.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 봉쇄 기간 이민 문의는 10배 이상 늘었고 SNS에서도 관련 검색어 조회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명보는 19일 상하이 봉쇄 여파를 다룬 특집 기사에서 올해 봄 상하이의 코로나19 상황은 지난 2020년 초 우한 사태 이후 최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하이 주민들은 정부 조치에 엄청난 환멸을 느꼈고 봉쇄가 해제되자 이사나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로 인해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유향 열풍이다. 중국 포털 바이두에 따르면 유향은 다른 나라의 높은 복지를 누리기 위해 국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민 업체나 유향 기관이 내놓

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이후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면서 유향으로 불리게 됐다. 유향의 중국어 병음은 '룬(run)으로 된다는 뜻의 영어 '런'과 발음이 같아 해외 이민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인다.

상하이에선 2500만 주민이 두 달 넘게 집에 갇혀 있는 동안 곳곳에서 다름이 벌어지고 상호 불신이 커졌다. 방역 요원이 시도 때도 없이 현관문을 두드려 불안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베이징에서 정부 관리들이 파견되면서 상하이 고유 특색이 사라진 데 대한 불만도 극에 달해 있다.

미·중 합작관리회사 비안인터내셔널은 명보에 "미국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며 "이전까지 이민을 고려하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포털과 SNS에서도 이민 관련 검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 4월 바이두의 '캐나다 이주 조건'에 관한 검색량은 전달 대비 2846%, '어느 곳으로 출국하는 게 좋은가' 검색량은 2455% 증가했다. 이민 검색이 급증한 지역은 상하이, 톈진, 광둥성이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강도 봉쇄 조치가 취해진 곳들이다. 이민 목적지로 가장 많이 검색된 나라는 호주, 미국, 캐나다 순이었다.

봉쇄 기간 더욱 부각된 측면이 있지만 중국에선 올해 초부터 유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 이전에는 극심한 빈부격차, 취업난, 비싼 집값과 생활비, 코로나19 정책 불확실성 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현실에 저항하는 몸부림 중 하나가 일도 결혼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지낸다는 의미의 '탕핑'(躺平)이고, 아예 중국을 떠나는 유향 열풍이라는 것이다.

올해 증발한 가상화폐 가치, 2008년 부실채권 보다 많아

전체 가상화폐 가치가 1조 달러 밑으로 쪼그라들었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우려에 대장격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물론 알트코인까지 모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들어 증발한 가상화폐 가치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부실채권 규모를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데이터를 집계하는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체 가상화폐 가치는 18일(현지시간) 한때 8200억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33조691억 달러 대비 73% 줄어든 것이다. 가상화폐 가치는 올해 들어서만 약 1조5000억 달러가 증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규모(당시 1조3000억 달러 수준)보다 크다.

유럽중앙은행(ECB) 이사회 집행위원회 위원 파비오 파네타는 지난 4월 심층 분석 보고서에서 "가상화폐의 성장은 재정적 안정성에 상당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세계 금융 시장을 무릎 꿇게 만든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과 유사한 역동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가상화폐에 직접 투자한 기업들의 손실이 크다. 비트코인 보유 기업 현황을 집계하는 '크립토타레저리스'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12만9218개를 사들이는데 모두 39억65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24억1500만 달러로 15억5000만 달러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올해 1분기 2억5000만 달러를 대출받아 비트코인 추가 매수에 나서기도 했다. 테슬라도 15억 달러

를 투자했지만 현재 가치는 8억760만 달러로 손실 규모가 7억 달러 가까이 된다.

NBC뉴스는 "주식을 포함한 다른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경제에 제동이 걸린다면 가상화폐 가치 하락은 심리적 충격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험자산 이탈 심리를 부추겨 투매가 지속할 수 있고, 주식 등 다른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엘리 노암 컬럼비아대 교수는 "(약세장에 대한) 비관주의를 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폴리토코는 "업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의회에 로비하던 블록체인 기반 기업들의 입지를 약화할 수 있다"며 "워싱턴에서 증가하던 가상화폐의 영향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예측했다.

미 금리 인상 폭탄에 신흥국 '도미노 디플트' 위기

"라오스 전역의 농부들은 계속되는 연료 부족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부에 애원하고 있다. 캄보디아, 비엔티안, 사바나켓, 루앙남타 지역 주민들은 연료가 없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었고, 일부 주유소는 연료가 완전히 고갈됐다."



국영 언론 비엔티안타임스가 지난주 보도한 라오스의 모습이다. 일부 지역은 주유소가 일주일 만에 1~2일 정도만 문을 열고, 따로 병이나 휘발유 통을 가져와 기름을 사 가는 것은 금지했다고 한다. 비엔티안타임스는 "농부들은 밭을 갈고 농작물에 물을 주기 위한 (농기계) 연료를 구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꾸준히 상승하는 휘발유 가격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시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삼중고가 신흥국 부채위기를 높이고 있다. 신흥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압박을 받아 왔는데, 여기에 최근 달러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며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게 됐다. 약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디플트 도미노'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회귀하면서 취약국가의 자산을 버리고 있다. (취약국가의) 채권 수익률이 치솟고 매달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저·중간소득 국가들에서 본격적인 부채위기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주 라오스 국가신용등급을 '정크' 등급인 'Caa3'로 낮췄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라오스의 심각한 연료 부족과 식품 가격 상승, 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스리랑카에 이어 글로벌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후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는 아시아 국가가 됐다"고 지적했다.

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의 제러미 쥬크 애널리스트는 "현시점에서 환율 변동성 압박이 상당하다. 최근 유가 상승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라오스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브라질과 칠레의 달러 대비 환율이 이달에만 각각 9.52%, 9.09% 상승했다. 스리랑카, 짐바웨, 레바논 등 국가들은 이미 국가부도 위기 상태다. 유럽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남미의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가나, 모잠비크, 아시아의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등은 국제 수익률이 급증했다. 조달 비용이 올라간 것이다.

I.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란 영어는 religion인데, 이 단어는 라틴어 religare에서 왔고, "단단히 묶다" (to bind fast)라는 뜻이다.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께 묶이는 것이 곧 종교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종교의 또 다른 라틴어는 relegere이다.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하다" (to ponder carefully) 뜻인데,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의미한다.

본래 종교의 기본적인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는 하나님밖에 없으며, 곧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이며, 우주의 유일신은 오직 한 분, 성경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옛날 영어 서적을 읽으면 religious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믿음)을 말하며, Religion이라는 말은 곧 기독교를 의미한다.

II. 신학이란 무엇인가?

A. 신학의 객관적 정의

신학이라는 단어 "Theology"는 "Theos (하나님, 신) + "logy" (학문) 합성어이다.

19세기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찰스 핫지 (Charles Hodge)는 "신학을 과학"으로 생각하며, "성경은 사실들의 창고"라고 했다 (theology as science and the Bible as a storehouse of facts).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배열하여 원리들을 만드는 것이 곧 신학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마치 천문학자들이 해, 달, 별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처럼, 신학은 성경의 객관적인 사실들을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원리들을 만드는 학문이 곧 신학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방법이 곧 신학의 객관적 방법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체계화하는가? 성경에는 체계가 없는가?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등,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성문서, 등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러한 성경의 체계보다 우리가 더욱 좋은 객관적인 체계를 만들 수 있는가? 성경의 사실들을 그대로 읽고, 은혜받으면 되지 우리가 꼭 체계화시켜야 하는가? 이렇게 신학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신학 체계를 세울 때 우리가 다른 학문처럼 꼭 합리적이어서 하는가? 합리적으로 하는 말은 이성 (reason)에서 나온 말이다.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성경에는 많은 초자연적인 사건들과 기적과 이적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종교에서 이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판단한 사람은 임마누엘 칸트이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현상계를 벗어나는 세계 (Noumena), 곧 물

질 본체 (Ding an sich), 영혼의 세계, 그리고 신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이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종교를 탐구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므로 칸트의 논리에 의하면 성경을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해서 이성을 가지고 학문을 세우는 객관적인 신학의 방법은 불가능하다.

B. 신학의 주관적인 정의

신학의 객관적인 방법에 반대하면서 생겨난 방법이 신학의 주관적인 방법이다. 이 방법론에 의하면, 기독교에서 신학에서 객관적인 체계를 세우는

이전은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자 헤르만의 경건에 감화되었다고 회고했다. 물론 메이첸은 자기의 스승 헤르만 교수가 가르친 자유주의 신학을 철저히 비판하였고, 정통적인 개혁 신학을 사수한 위대한 신학자이다.

술라이어마허 이후로 서구의 신학은 객관적 신학적 전통을 부정하고 실존신학, 현상학에 근거한 신학, 그리고 프로이트 심리학의 영향을 받는다. 그들은 전통적인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의 신학 체계를 부인하고, 인간의 심리학, 인간의 종교적인 체험과 감정 등이 신학의 중심이 된다. 오늘날도 많은 신학교에서 전통적인 객관적인 신학 체계를 포기하거나, 대폭 축

하여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주님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다 (요 14:26). 그리고 요 16:13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셨다.

궁극적으로 성경을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의 이성과 인간적인 논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마 13:13,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

어길 수 있다. 교회에서는 정직한 기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다.

2007년 미국의 유명한 에너지기업, 엔론(Enron)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많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 그 회사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좋은 크리스천들이라는 평판을 들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회사의 회계 부정을 많은 사람을 속였다. 엔론의 창업자 및 CEO, 케니 레이 (Kenneth Lee Lay)는 열심 있는 크리스천이었고, 다니면서 많은 교회에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기도 했다.

오늘날과 같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속에 (pluralistic society)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오직 말씀으로 (sola scriptura)라는 뜻은 말씀만 잘 알고 (text) 있으며, 상황 (context)를 몰라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직 말씀"이라는 뜻은 각자가 사는 상황 속에 성경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 설교자들이 매 주일 설교하는 성경적인 설교 (Biblical preaching)는 성경의 내용 (Text)만 전하는 것이 아니다.

구속사적인 (redemptive history) 설교를 주장하는 설교자들도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오늘 나의 삶의 상황 속에 (Here and Now)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면 온전한 설교가 되지 못하며 바른 신학이 되지 못한다. 개혁주의 신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 말씀 (특별히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사는 삶의 상황 (here & now)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일을 해야 한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면서도 가장 비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신학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변하는 세상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도해 주는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하나님께 가셨지만, 한국 선교사로 계셨고, 나중에 미국에 오셔서 필라델피아 웨스턴민스트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던 하비 칸 Harvey Conn) 교수의 "영원한 말씀과 변하는 세상" (Eternal Word and Changing Worlds) 책에 잘 나와 있다. 하비 칸 교수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말씀 (text) 과 상황 (context)의 관계를 잘 설명한다.

성경을 바로 안다는 것은 성경으로 상황을 분석, 비판, 그리고 성경적인 삶의 방향을 찾는다는 의미이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KHL0206@gmail.com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1)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신학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변하는 세상에 적용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일"

합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체험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만남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신앙의 체험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이 신학이라고 주장한다.

객관적 신학 방법에 도전하면서 기독교 체험을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곧 교리(신학)라고 주장한 사람이 술라이어마허 (Schleiermacher) 라는 신학자이었다. 그는 성경의 자리에 인간의 감정을 대체시켜 이것을 신학의 최종 권위라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술라이어마허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 칭한다. 그는 성경과 교리보다는 개인의 감정과 체험을 앞세워 신학을 세웠다. 이 방법론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혹적이며, 설득력이 있다.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메이첸 (Machen) 교수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헤르만 (Wilhelm Hermann) 박사를 매우 존경하였고, 헤르만 교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당시 헤르만 교수는 독일의 말부르크 (Marburg) 대학에서 가르쳤고, 메이첸은 그곳에서 연구했다.

헤르만 교수는 칸트와 리츨에게 영향을 받은 당시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신학자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선의 능력 (the power of goodness)으로 생각했고, 예수님을 우리의 모범적인 한 인간으로 (an exemplary man) 보았다. 요즈음 우리가 보아도 성경에서 많이 벗어난 자유주의 신학자이다. 메

소하고, 그 대신 인간 중심의 학문들 (심리학, 상담학, 리더십, 등)을 발전 시켜나간다.

우리 인간의 종교적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체험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 체험의 순수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주관주의 신학은 결국 기독교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 메이첸은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가 아니다." 까지 주장했다.

C.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신학.

1. 신학의 기초와 기준은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이다.

개혁주의 신학자 존 프레임 (John Frame)은 신학을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 시키는 것" (the application of the Word of God by persons to all areas of life) 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신학의 기초와 기준은 오직 성경이며, 성경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들 (죄, 악)을 치료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으며, 신학의 적용은 신학이 교회나 신학교에서만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2. 신학의 범위는 인간의 삶과 피조 세계의 모든 영역이다.

3. 바른 신학을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바로 해석

이것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그들이 성경을 자기들의 상황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성경을 잘 안다"는 말은 성경 (text)을 지금 내가 살고있는 상황 (context)에 잘 적용해 우리의 삶이 성경 말씀에 의하여 주도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화 된다는 뜻이다.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정황 (Sitz im Leben)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제를 받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되는 것을 의미 한다. 예를 들면 십계명,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삶의 정황을 잘 알아야 한다. 성경에는 현대 시장 구조에 대해서 나오지 아니한다. IRS의 세금문제와,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문제, 그리고 서류상 가짜 회사 (paper company)를 만들어 재정 문제를 속이는 등, 현대 사회의 시장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특별히 사모 펀드 (private equity)의 규정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복잡한 현대 시장 구조 속에서 8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면 성경 (Text)뿐만 아니라, 상황(Context)도 잘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를 잘 섬기며, 많은 헌금을 하는 장로님이 자기 회사를 경영하면서 다양한 수법으로 8계명을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with their names,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Churches include: 갈보라장로교회, 다민족교회, 몽고메리교회,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벨렐교회, 보스턴장로교회, 새생명안인교회, 안디옥교회, 일칸사 제자들과교회, 앵커리지열린문교회, 영생장로교회, 킬린은누리교회,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multiple locations).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61)



존 오웬(John Owen, 1616-1683)의 "죄 죽임에 관하여, On Mortification of Sin" (7)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5장 죄를 죽인다는 의미에 속하지 않는 것도 있다

2) 죄를 숨기려는 것이 죄를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다

4) 일시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죄를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다

5) 순간적으로 죄를 이긴 것이 죄를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골 3:15). 이 내용을 기초로 성도들이 죄를 죽이려 할 때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어 보자.

죄를 죽인다는 것이 죄를 감춘다는 의미는 아니다. 외형적으로 죄의 행동을 포기하는 외식자를 보면서 우리는 그를 변화된 사람으로 칭송할 수 있다. 그는 이전의 죄에다

당신이 아무리 신앙을 고백하고 모든 불의의 행위를 버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당신 마음속에는 이전처럼 정욕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

(1) 첫 번째 상황은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보고 극도의 슬픔을 느끼고 마음의 평화가 깨지며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사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는 경우이다. 자신을 일깨우고, 죄와 자신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을 위해 울부짖는다. 정욕과 싸우려는 자세를 취한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면 고개를 들고 일어난다.

1) 마음속에서 죄를 몰아내는 것이 죄를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다



죄를 죽이는 일은 죄를 완전히 도말하거나 근절시키고 파괴시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진실로 죄

(2) 두 번째 상황은 재난과 고통의 압박, 그리고 심판을 받는 상황이 올 때 그런 현재의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자신 속에 있는 영적인 죄를 시인해야 한다"

를 완전히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마음속에 죄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것을 억제하는 것뿐이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로 우리는 죄에 대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죽이고 제거하는 일은 이 땅의 삶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빌 3:12). 바울은 여전히 우리처럼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씻김을 받아야 하는, 죄로 더러워진 몸을 가진 자였다(2절). 그것이 유익한 것은 모든 일에 우리를 위해 최선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골 2:10).

저주스러운 위선의 죄를 덧붙인 자이다. 그는 전보다 훨씬 지옥의 문에 더 가까워진 셈이 된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새로운 마음보다 더욱 교활한 마음이 자리잡게 된다.

정욕의 물결기를 잠시 딛고 있는 것으로 전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시 다른 형태로 뒤덮여 버려진다. 세월이 가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신체의 변화도 전환되어 나타나는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젊었을 때 정욕을 추구하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정욕의 형태가 바뀌는 것도 죄의 전환이다. 교만한 삶을 살거나 바리새인적인 삶 대신에 외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자신이 특정한 죄의 형태를 피했다고 다른 모든 죄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는 단지 자신의 주인을 바꾸었을 뿐 여전히 죄의 종이다.

는 경우이다. 죄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로 벌을 받는 일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 분노를 피하고자 죄와 대항하기를 꾀한다. 이때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죽은 것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죄가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의 다짐들이 사라지게 되면 죄는 다시 등장하여 이전의 활력을 되찾는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 하였을 이 때문이다" (시 78:32-37). 결국 가련한 영혼들은 자신들을 계속 속인다. 그래서 자신들 속에 죄가 강력하게 살아 있고 틈만 나면 자신들을 괴롭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죄의 정욕을 죽였다고 착각한다.

younsklee@hotmail.com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6) 사연? 노사연?

오랜 기간 멤버였던 한 여자분이 십수 년 전에 떠나는 남편이 지만 못다 한 점이 있었는지, 미움이 남아있었는지 암튼, 할 말이 많았나 봅니다. 말씀 선포에 주력하시는 남성 목사님께 귀땀 뺐더니 그다음 모임 때, '여러분들에게 사연이 많은 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노사연입니다.'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중간에서 제 심장이 쿵! 하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른말을 도맡아 하는 그 여성분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 의견인즉 "이혼하신 분들 사연을 들으면 끝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이 된다"는 요지였는데 다행히도 그 여자분이 잘 수긍해주었습니다.

"남편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모임 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

인도자 중에 이혼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얼마만큼 들려야 하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기 입술로 말하면서 생각지 못한 응어리가 풀어진다든지 반짝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산같이 크던 문제가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해결이 된 듯 느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상담자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잘 들어줌으로써 본인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지요. 그분의 경우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애들을 양팔에 안고 집을 나와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뭔가 암암처럼 가슴 깊이 남아있던 문제를 정리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내성적인 성품의 사람인 경우 남들 앞에 나의 속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 남들이 안가겠지만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경우 그편이 마음의 정리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암튼, 그런 응어리가 녹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설 자리도 생긴다고 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만큼 독무대를 마련할 수는 없지만, 삶의 이야기를 적당히 나눌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말씀만 연속된다면 신학교 강의실이 되는 것처럼 과거사가 지나질 경우 신세타령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나눔에 대해 몇 가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되도록 사후 다과를 즐기면서 간단한 이혼회복에 관한 강의를 합니다. 시간제한을 주면서 그날의 강의에 관련된 주제에 맞춰 돌아가면서 나누도록 합니다. 2인원이 12명이 넘지 않도록, 남성과 여성 팀으로 혹은 연령별로 나눕니다. 그때로 입 폐기를 전혀 원치 않는 분이 있으면 강요할 수는 없지만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불평이 있을 수 있으니 인도자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속 깊은 얘기를 할 경우 나중에 후회할 경우를 위해 적당히 절제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를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잊지 않도록 가끔 강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구절이 여러 곳 (여호수아 23:6, 신명기 5:32, 잠언 4:27)에서 나옵니다. 적당히, 적절히, 균형 있게, 중용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겠지요. 아무쪼록 한 부모(싱글) 모임의 참가자들의 대다수가 평탄한 삶을 살 수 없었던 만큼 사연의 보따리를 풀 수 있게 하면서, 모든 문제의 해결 열쇠가 되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인도자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hyojungyoo2@yahoo.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Los Angeles, San Diego, and Orange County.

6.25 72주년을 맞으며 / 대담

그레이트한반도통일리더십연구소대표 김희창 목사

애국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목회자가 되자

6월이 되면 우리 민족에게 잊을 수 없는 아픔의 잔혹 상이 떠오르게 된다.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에 북한이 기습적으로 대한민국을 침공(남침)하여 발발한 전쟁이다. 이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전사자들을 낳았고 남북이 갈라지는 뼈아픈 아픔을 겪었다. 올해로 72주년을 맞는 6.25에 그레이트한반도통일리더십연구소대표, 한미동맹강화미주총괄위원장 김희창 목사와의 대담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각인해야 할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6.25 72주년을 맞는 심정이 어떨는지요.
이때가 되면 6. 25와 민족의 환란과 비극 가운데 하나님께서 배후신 은혜가 기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6.25 직후, 한미상호군사보호조약을 맺게 하여서 이것이 한미 동맹의 기초가 되게 한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6.25 전쟁을 김일성이 일으켰지만, 그로 인해 한미 동맹을 맺게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음은?
6.25 발발 72주년을 맞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보낸 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그의 건국정신이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지요. 그 당시 이것을 심기에는 박헌영을 비롯해 좌파가 많아 힘든 상황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을 헌법에 넣어주어 법제화시킨 것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유민주주의 승리와 정신을 잘 지켜 가야 합니다.
지금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망해가는 것은 북한의 젊은이들은 10년 이상 군사 의무를 지켜야 했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그때 우리 한국은 청년들을 2년 정도

로 단체 훈련시키고 국가관을 확립시켜 준 것이죠. 이것이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청년들은 10년 동안 있으면서 맹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고 개인이 살아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추지 못했지요. 이로 인해 현재 남과 북이 확실한 격차로 나뉘는 역사의 실체를 보여 주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인간을 훈련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이용하는 국가 운영체제는 앞으로 더 힘들고 역사에서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목사님이 보시는 북한의 근황은?
입수된 정보를 보면 앞으로 북한은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북한 상황에서는 권력의 암투는 더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요즘 전 세계가 그렇듯이 한국의 현대 문화가 북한에 파급됨으로 북한이 문화에 의해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기아선상에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북한하고는 예외이지요. 북한은 진실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데 그 반대의 악한 마음을 심어주고 있었지요. 북한은 극한 상황이 오면 미국을 기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 시기에 우리는 함께 자유통일을 기도하고 한반도를 구해야 합니다.

첫째 목회자들의 애국적 리더십이 더 발휘하기 바랍니다. 6.25 전쟁의 참상을 잊어 가는 2세들에게 우리 자유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바로 심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미군의 젊은이들이 6.25에 많은 수가 죽었지요. 어마어마한 젊은 청년들이 한국을 위해서 죽었던 피비린내 나



6.25 전쟁사를 통해 미국과 좋은 협력 관계가 되어야 하고 셋째로 대한민국이 세계 제2의 강한 리더십을 가진 나라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 남가주 지역의 6.25 행사 '6.25 한국전쟁 제72주년 상기에배 및 연합추모행사': 6월 25일(토) 오전 10시 30분 해돋이교회(정갑식 목사)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6.25 참전 제72주년 기념식': 6월 25일(토) 오후 2시 오렌지카운티한인회관

(이성자 기자)

생명의 전화 제 24기 상담봉사원 훈련세미나

동포들을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주는 상담지역

생명의 전화(대표 박다윗 목사) 제 24기 상담 봉사원 훈련 세미나가 7월 19일부터 미주 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개최된다. 생명의 전화는 동포들이 이민 생활에서 겪게 되는 고민, 갈등과 좌절 슬픔과 괴로움을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주어 삶의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며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다. 이 귀한 사역을 동역할 수 있는 상담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

해 실시될 이번 세미나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열리게 된다. 세미나 강사로는 박다윗 목사를 비롯해 김철수 목사(남가주목자영광교회), 김상 열박사(정신건강의료원 원장), 김현경 박사(월드미션대 교수), 고명희 원장(나와 너 대학연구소 소장), 조만철 박사(신경정신과 박사), 김대비 박사(임상심리학 박사), 정균희 박사(UCLA 정신과 은퇴교수), 김지성 박사(신경정신과 박사)가 초빙되었

으며 8월 25일(목)에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다. 본 세미나 등록은 선착순 30명으로 전화와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강의 시간은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7월 10일 이전 신청자의 회비는 50불. 부부일 경우 80불이며 그 이후 신청자는 70불 부부 신청은 120불이다. 단 목회자나 신학생은 30불이며 부부신청은 50불. 자세한 것은 (213)480-0691로 문의하면 된다. 생명의 전화 상담은 매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이다. (이성자 기자)

본/사/방/문

헤민병원 종합검진센터 - 이성수 소장

헤민병원 종합검진센터원 이성수 소장이 미주지역을 순회하며 한인교회 목회자들과 교민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특별 종합검진을 통해 건강 길잡이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지난 10일 본사를 방문한 이성수 소장은 건강검진에 대한 필요성과 헤민병원의 특별한 혜택을 소개했다.

“목회자들과 사모들의 건강검진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것을 알고 2개월 정도 머물며 헤민병원의 건강검진 혜택을 소개하려고 왔는데, 생각보다 만나야 할 사람들도 많아 4개월째 이곳에 머물게 되었다”고 입을 여는 이성수 소장.
지난 5월 KAPC총회현장까지 달려와 목회자들의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헤민병원을 소개했던 터라 이성수 소장과 의 만남은 낯설지 않았다. 그는 “이곳에 와서 느낀 것인데 목사님들 보다 사모님들의 건강이 더 많이 안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아무래도 사모로써 여러 가지

해 방문하는 이들과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긴 전통을 가지고 있는 헤민병원에서는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를 대상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종합건강검진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어 이민자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실제로 120만원가량이 소요되는 건강검진 비용을 미주지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동포들에게는 40만원으로



헤민병원 종합검진센터원 이성수 소장

이 쿠폰으로 검진을 받기위해서는 한국 방문 일정이 잡히면 미리 전화로 예약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소장은 “검진을 통해 조

건강지킴이...예방과 조기 질병 발견이 최우선

한국방문 시 5시간 만 투자하면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신경 쓰며 목사와 성도들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제가 미주를 방문하고 헤민병원의 종합건강검진 혜택을 통해 건강이 회복되고 행복한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큼니다. 이미 저희 병원 검진을 예약한 분들이 1,500여명입니다.”라고 말하며 헤민병원을 소개했다.

헤민병원은 1974년 김상태 산부인과로 개원하여 1982년 헤민 병원으로 개명, 이전한 뒤 1985년 종합병원개설 허가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헤민병원은 새롭게 개발되는 첨단의료기구를 완전자비하고 최고의료진과 직원을 420여명이 함께하는 대형종합병원으로 우뚝 섰다. 최근 헤민병원은 병원 리모델링을 위해 120억 원을 투자해 모든 시설을 최고급으로 갖추고 검진을 위

종합검진은 특수초음파, 갑상선검사, 골밀도 검사, 위내시경검사와 같은 필수검사, 안과 등 20여 진료항목을 통해 100여 가지 질환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진료를 위해 각 전문의가 질환을 검사하고, 별도의 추가비용도 없다는 것도 강조했다. 특별히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통한 뇌, 폐 검사는 저선량 CT를 사용해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 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는 헤민병원 종합검진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전화로 예약으로 하고 100불의 예치금을 내고 진료시 30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100불 예치금을 통해 헤민병원에서는 5년 유효기간인 쿠폰을 발행한다. 이 쿠폰은 본인이 사용하지 못할 경우 가족은 물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기에 암과 같은 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 언론사에 종사하는 분도 조기발견이 되어 치료를 받고 들어와 헤민병원의 종합건강검진에 대해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건강검진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다. 한국이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가 해제된 만큼 자유로운 모국 방문이 될 것이다. 모국 방문시 꼭 건강도 체크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검진예약은 최소한 한 달 전에 예약해 달라”며 “특히 9월~12월은 유난히 한국 방문이 성시를 이루는 시기이기에 두어 달 전에 예약하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헤민병원에 관한 것은 http://www.e-hyemin.co.kr/htm 에서 볼 수 있고 건강검진 쿠폰 문의는 (213)341-5123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아펜젤러 선교사 추모예배로 모인 배재학당 동문 단체 사진

배재학당 동문들, 아펜젤러 선교사 추모예배

'아펜젤러 선교사 서거 120주년 추모

뉴욕에 있는 배재학당 동문들은 6월 8일(수) 오후 7시에 좋은씨앗교회(임용수 목사)에서 '아펜젤러 선교사 서거 120주년 추모예배'를 드렸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는 교

훈을 가지고 있는 배재학당은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웠다. 크리스천 배재동문들은 배재학당 개교 137주년 기념예배와 함께, 학교 설립자인 아펜젤러 선교사 추모예배를

같이 드린 것이다. 예배는 배재동문들이 순서를 맡았다. 사회 임용수 목사(좋은씨앗교회), 설교 유재도 목사(땅끝교회 원로), 기도 합용식 장로(퀸즈장로교회), 특송 뉴욕배재교람중창단(지휘 황광철 집사), 헌금 기도 홍춘식 목사(오메가선교회), 축도 안순국 목사(미국 UMC교회), 광고 유규현 회장(뉴욕동문회) 등이 맡았다. 유재도 목사는 사도행전 7:55-60 말씀을 본문으로 '빛을 낳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그리고 특별히 이날 헌금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선교헌금으로 드려졌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27세에 드류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도착하여 선교사역을 하다 44세의 나이로 목포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사고로 별세했으며,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정리: 김재상 기자)

코로나은혜한인교회 창립감사예배

"새 사람, 새 교회, 새 역사를 위하여"

지난 2월 6일 리버사이드 카운티, 코로나 시에 한기홍 목사가 시무하는 은혜한인교회 창립 40주년 기념교회로 개척된 코로나은혜한인교회가 오는 6월 26일 주일 오후 4시에 창립 감사예배를 드린다. 담임 김대섭 목사는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지난 12년간 행정목사로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부

르심에 순종하여 교회를 개척했다. 김대섭목사는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리더십분야 논문상을 받았을 정도로 지식과 영성을 겸비한 목사이다. 그리고 US Army Reserved Chaplain 대위로 임관하여 사역하는 등 다양한 기관에서 사역하였다. 현재 Grace Mission University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

다. "새 사람, 새 교회, 새 역사를 위하여" 라는 비전 선언으로 시작된 코로나은혜한인교회는 선교적 교회와 말씀과 기도의 영성이 충만한 교회이다.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초청한다. 교회 주소: 722 S. Main St. Corona, CA 92882 (First Baptist Church 건물 사용)에 배시시간: 12:45pm ▲ 문의: (714)336-4378, gkccorona22@gmail.com (기사제공: 코로나은혜한인교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쿠바지부 개설 한다

"쿠바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 선교의 열기가 타오르기를"

미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는 지난 6월 6일(월)부터 9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쿠바를 방문하고 지부개설과 향후 공동선교전략을 함께 수립해가기로 했다.

대표회장 송정명 목사와 이사장 김재권 장로, 그리고 오를라호마에서 합류한 회원 등 12명의 방문단은 쿠바에서 29년째 사역하고 있는 J-선교사의 안내를 받아 쿠바 현지인 교회 등을 방문했다. 현재 쿠바에는

2만5천여 곳의 가정교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가정교회들은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쿠바를 그리스도에게"라는 표어를 내걸고 복음전도에 힘쓰고 있는 중이다. 방문단은 또 콩고, 우간다 등 아프리카 권역에서 쿠바로 유학을 와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의과대학을 방문하고 학생들과 만나 그들의 꿈과 비전을 듣고 도전의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J-선

교사는 제3세계 국가에서 쿠바로 유학을 와 있는 유학생들을 집중적인 선교대상으로 삼고, 쿠바에서 훈련하고 복음으로 무장을 시켜 본국에 돌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는 선교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미주성시화운동 본부는 이같은 쿠바의 선교현황을 돌아보고 쿠바 지역 성시화 대표자로 J-선교사를 위촉하고 보다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선교사역이 진행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고 사역의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정명 대표회장은 "3박4일의 비교적 짧은 일정으로 진행된 쿠바 선교지 방문 비전트립은 짧은 일정에 비해 이른 아침부터, 매일 밤 10시가 되어야 숙소에 돌아올 만큼 짜임새 있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었고, 실제 쿠바의 영혼들의 삶의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현장중심의 트립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말했다. "미국본토와 거리상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섬나라 쿠바, 새롭게 선교의 길이 열리고, 물꼬가 트여진 만큼, 강력한 성령의 바람, 선교의 열기가 식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타오르고 확장되기를 기도하며 돌아왔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동부교계 게시판

나이스크 패밀리 컨퍼런스 2022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산다"는 Theme 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 예배회복을 외치며 나아가고 있는 Nyskc World Mission (NWM)에서는 오는 2022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뉴욕서광교회(담임 최고센 목사)에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교역자 및 모든 교인들을 대상으로 여는 이번 컨퍼런스 회비는 \$150이다.

▲문의: nyskcusa@gmail.com, (845)224-3277, (646)203-2644, (646)269-0045

"Summer Special" 키즈 바이블 어드벤처 시즌5

키즈 바이블 어드벤처 시즌5(시즌1,2,3,4와 다른 6개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는 2022년 7월 11일부터 8월 15일까지 매주 월요일 미주동부시간 7:30~8:50 PM 6주간 진행된다.

대상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이며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된다. 등록비는 \$60.(둘째와 셋째는 \$40로 할인)

▲문의: 낮은올타리 미주본부 646-300-4790, http://www.wooltarius.org

KWMC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 "예수, 온 인류의 소망 (Jesus, the Hope of the World)"(롬 15:12) 이라는 주제로 오는 7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와싱턴중앙교회(담임 류영렬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kwmc.usa@gmail.com, http://kwmc2022.org, 한국: 070-4610-1346/ 미주: (714)603-7192

아름다운교회 비전장학생(신학석사과정 대상) 선발

아름다운교회(롱아일랜드)에서 제28회 비전장학생을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재미한인으로 2022-2023년 학기에 동부 6개 주(NY, NJ, CT, RI, MA or PA)에 속한 신학교 목회학 과정(M.Div)으로 풀타임(9학점 이상)으로 재학중이거나 진학 예정이며,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다.

▲신청정보 및 온라인 등록: www.arumdaunchurch.org/visionscholarship/

▲접수마감: 2022년 8월 1일

▲문의: arumdaunvision@gmail.com

뉴저지초대교회 전임교역자 청빙

뉴저지초대교회에서 장년사역을 담당하실 전임교역자(부목사)를 청빙한다.

자격: 정규신학교 졸업자, 미주한인교회에서 3년이상 장년사역 경험자, 합법적 신분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고백, 목사안수증명서, M.Div 졸업증명서, 추천서, 설교영상

제출마감: 2022년 7월 15일

제출처: HR@njchodae.org

▲문의: 201-767-0400

보스톤밀알한인교회 유스 종교등부 사역자 청빙

보스톤 인근 Chelmsford, MA에 위치한 보스톤밀알한인장로교회에서 다음세대를 말씀과 사랑으로 섬길 유스 종교등부 파트타임 사역자(신학교 재학, 졸업, 재학예정자)를 청빙한다.

▲문의: fafamilal@gmail.com, www.milal-church.org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의 밤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있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제16회 총동문회의 밤" 열려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등지에 해외분교 설립 가능성 검토중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회장 김경수 목사)는 지난 14일(화) 퀸즈장로교회 친교실에서 "제16회 총동문회의 밤"을 가졌다. 회장 김경수 목사 사회와 부회장 정인수 목사의 찬양 인도로 시작된 예회는 김경수 목사(회장)의 환영사와 장규준 목사(31회기 회장)기도, 김은숙 전도사(부회장) 성경봉독에 이어 김성국 목사(학장)가 "서로 받으라"(본문 로마서 15:7)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김목사는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는 지난 1월 미시온신학교와 MOU 체결을 통하여 신학석사 과정(Th.M)을 개설하고 공동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으며 앞으로 키르기스스탄 등 해외에 분교를 개설할 계획으로 준비 중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셨듯이 우리도 뉴욕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하나님의 권귀와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신학교를 배출해 나가야 한다"고 설교했다. 학감 정기태 목사는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더 많은 사역자들을 배출하기 위하여 힘을 것이며 해외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등 현지를 방문하여 앞으로 분교 설립 가능성을 파악할 예정"임을 밝히며 신학교를 소개했다. 한편 이날 장애인 및 노인 선교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임선숙 선교사, 할렘지역선교의 김명희 선교사, 불우어린이돕기 사역의 김창렬 목사를 비롯한 동문 선교사들에게 선교후원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날 이종원 목사(뉴욕새사람교회)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직전 회장인 장규준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 했으며 정인수목사가 신입회원을 소개한 뒤, 노기송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재상 기자)



뉴욕교협 이사회와 졸업식에서 장학금 전달 받은 21명 학생들

뉴욕교협 이사회, 21명 학생들에게 성경책과 장학금 전달

불우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극복장학금, 학생들에게 위로 되기를.

뉴욕교협이사회(김일태 이사장)가 지난 14일 화요일 저녁 뉴욕 브롱스 옹커스에 위치한 마운트 버는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가하여, 불우한 환경을 잘 극복하고 졸업하는 21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250달러 장학금 체크와 성경책을 선물로 전달했다. 뉴욕교협 김일태 이사장과 부이사장 조동현 장로, 교협 부회장 이준범 장로는 학생들을 위해 지난 3개월 동안 모금을 하고 이날 총 5,800달러를 전달했다. 마운트 버는 고등학교 화학교사인 양재철 장로에 따르면, 불우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극복장학금(Overcomers Scholarship Award)은 지난해부터 One FAM 재단이 시작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는 귀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장학금이다. 장학금으로 제공되는 250달러는 학생들이 대학교 가서 필요로 하는 책들과 물품을 사는데 사용하라고 주는 것이며, 같이 주는 성경책은 말씀을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에 전달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기대가 있다면 이러한 기회를 통해 주로 혜택을 받는 흑인 학생들에게 한인들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겨 더 이상 한인들과 흑인들의 갈등과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기도 하다. 양재철 장로는 "장학금 전달을 통해 학생들과 선생님들한테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으며, 항상 함께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이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언젠가는 더 많은 학생들을 돕고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을 믿는다"고 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로고스선교회 본사에서 열린 송솔나무 간증 콘서트



뉴욕기독교예술선교회 정기연주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욕기독교예술선교회 2022년 정기연주회

찬양으로 예수사랑 전하며 지역사회 회복

뉴욕기독교예술선교회(회장 김해은, 이사장 김동석)는 팬데믹으로 인해 2년간의 멈춤을 극복하고 18일(토) 오후 5시에 퀸즈한인교회(김바나바 목사)에서 "2022년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2017년 창단에 배를 드린 뉴욕기독교예술선교회는 클래식 앙상블, 예담국악선교단, 뉴욕기독교 리틀키즈합창단, 뉴욕기독교 어린이합창단, 뉴욕기독교 청소년합창단, 뉴욕기독교 여성합창단 등 6개 단체가 속해있다. 예술선교회의 방향성은 기독교 음악의 알리고, 교회와 지역사회에 찬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와 선교지를 후원하며, 지역 선교단체와도 찬양과 공연으로 협력사업을 이루는 것이다. 뉴욕기독교예술선교회는 지난해 연말부터 뉴욕기독교 여성합창단을 중심으로 뉴욕교협의 미스바회개운동집회와 신년감사예배와 뉴욕선교대회, 뉴욕선교사의집후원감사예배, 영성회복 뉴욕성령대명회 등에 참가했다. 특히 예술선교회의 감정은 유년, 어

린이, 청소년으로 이어지는 소속됨을 통해 다음 세대에 찬양의 바른 의미를 가르치며, 교회음악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기연주회는 김동석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 돼 김해은 회장이 개회사와 리틀키즈합창단과 예담국악선교단의 공연으로 막을 올린 뒤 차석희 목사(뉴욕성실장로교회)기도에 이어 이길호 목사가 에베소서 5:18-21 말씀을 본문으로 "찬양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진 정기연주회는 클래식 앙상블의 찬양, 예담국악선교단 공연, 선교회 소개영상, 광소라 준비위원장의 인사, 어린이합창단, 청소년합창단의 찬양으로 이어졌으며 모든 찬양팀의 연합찬양으로 클라이맥스에 다다라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모든 순서는 이길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뉴욕성실교회는 7월31일(주일) 이길호 목사가 은퇴하고 차석희 목사가 담임으로 취임하게 된다.

(정리: 김재상 기자)

송솔나무 초청 간증 및 플루트 콘서트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3개월 넘게 구호 활동 진행중

로고스선교회(대표 박도원 목사)는 우크라이나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송솔나무 플루티스트를 초청하여 간증 및 플루트 콘서트를 개최했다. 로고스선교회가 주최하고 크리스찬저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16일(목) 1:30 pm(CST), 로고스선교회 채플, 17일(금) 8 pm(CST) 한미장로교회 19일(주일) 11 am(CST) 헤브론교회에서 연이어 열렸다.

16일, 로고스선교회 본사에서 열린 첫 행사에서 송솔나무 플루티스트는 우크라이나 피난민 구조와 구호품 전달 상황을 전했다.

간증을 통해 송솔나무 선교사는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중 5%도 안 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구조활동 및 구호품 전달 역할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구호품 창고 책임자들도 기독교인이었다. 그들은 교회에서 3시간 동안 예배하고 매일 창고에 모여 기도한다"고 전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무고한 난민들의 현재 상황을 전하면서, 송 선교사는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활이 걸린 엄청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피난민들을 생각하며 '내 고향'과 '그 언덕'을 연주한 송 선교사는 "폴란드에서 전국 12개 도시에서 모금 콘서트를 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그러나 나는 후원금을 걱정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인들과 함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한국전쟁에서 3만 6천 명 이상의 미국 군인들의 희생과 8만 명이상의 유엔군들의 희생으로 대한

민국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한 송 선교사는 이번 전쟁 중에 목숨을 잃은 한인 교포와 구조위원을 추모하며 '나의 영웅'을 연주했다.

"구호 물품을 나르고 전달하는 일이 전쟁에서 싸우는 것 못지않게 우크라이나를 버티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며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우크라이나가 잊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잊지 말고 기도해 주길 바란다."라고 간증을 마무리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3개월 넘게 구호 활동을 해온 송 선교사는 "가족과 함께 장기적인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 폴란드에 송솔나무파운데이션 구호 법인을 설립하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봉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 선교사는 이미 현지에서 구호 창고 7개를 운영하면서 구조위원들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기에 가능하다고 고백했다.

오직 아이들과 무고한 난민들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물질의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구호 활동에 뛰어 들었다는 그는 3,000명의 이상의 피난민들을 구조했고, 3,000톤 이상의 구호품을 보냈으며, 하루 5,000여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는 지금의 결과에 스스로도 놀란다고 전했다.

▲후원 및 모금 문의 : 로고스선교회 847-604-0014 (기사제공: 로고스선교회)



로잔대회 소개 설명회가 프라미스 교회에서 열렸다

로잔대회 소개 설명회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려

유기성 목사 "다시 한국교회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

뉴욕교계에 로잔운동을 소개하고, 2024년에 로잔운동 4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열리는 4차 로잔대회를 소개하는 설명회가 6월 16일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렸다. 이 모임은 서울 로잔대회를 2년 앞두고 뉴욕에서 열린 준비모임 일정 도중에 준비됐다. 준비모임인 '로잔 뉴욕 국제 리더십 회의(LANY)'는 6월 13일부터 5일간 프라미스교회에서 45개국 180명의 로잔운동 리더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로잔 설명회는 허연행 목사(프라미스교회)의 사회로 마이클 오 목사(국제로잔운동 대표), 이재훈 목사(한국로잔 대표, 은누리교회), 유기성 목사(한국로잔 이사, 선한목사교회) 등이 로잔운동과 2022년 서울로잔대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기성 목사는 발표를 통해 한국교회 부흥이라는 큰 그림을 놓고 간절한 눈물의 호

소를 했다. 유기성 목사는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부흥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예수동행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소개했다. 그리고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에 2024 한국 로잔대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외쳤다. 한국로잔대회를 치르는 한국교회의 자세에 대해서도 부탁했다. 세상의 성공 잣대인 크기나 무난함이 아니라, 로잔운동을 통해 한국교회가 정말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접근하라고 부탁했다. 유기성 목사는 "서울 로잔대회가 전 세계 기독교의 큰 축제 같은 행사이지만, 한국교회에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의 회개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제41차 정기총회

교회를 살리는 총회, 교회가 살리는 총회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제41차 정기총회가 '모든 것의 중심이신 예수'라는 주제로 13일(월)부터 15일(수)까지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열렸다. 마지막 날 오후에 열린 총회는 김영하 목사(살롬선교침례교회/남가주지방회)와 이행보 목사(내쉬빌연합침례교회/테네시지방회)가 총회장 후보로 출마했다. 투표는 총 323명이 참석하여 6표차로 이행보 목사가 총회장에 선출됐다. 그리고 제1부총회장에는 단독 입후보한 조낙현 목사(타이드워터 한인침례교회)가 추대됐다. 신임 총회장 이행보 목사는 "교회를 살리는 총회, 교회가 살리는 총회라는 총회 비전을 따라 교회와 총회의 부흥을 위해 노력할 것"을 표명했다. 이 목사는 "70명 선교사 파송과 30개 교회 개척을 위한 5개년 계획 실행에 사역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주 한 인침례 교단의 훌륭한 목사님들과 협력하면서 70명의 선교사와 30개 교회 개척을 위한 '2026 비전'을 실행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미국 내 15개, 캐나다 10교회, EM 5개 교회를 목표로 교회 개척 운동과 전도 활성화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침례교(Southern Baptist Convention, SBC) 소속 한인교회 목회자와 선교사 가족 등 1천 여명이 참석한 올해 총회에는 한국에서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고명진 목사와 임원단이 방문해 교류와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첫날 코너스 톨교회 찬양팀의 콘서트로 문을 연 총회는 본국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와 샌드 네트워크(Send Network) 총재 반스 피트 맥 목사가, 게이트웨이 신학교 제프 로그 총장이 나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눴다. 그리고 둘째 날 오후에는 애나하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SBC총회에 참석했다. 또한 현장 목회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주제로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대처법



제41차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어린이 그림 성경 창작활동 △위드 코비드 시대 건강관리 △IMB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 △교회 개척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 등 10개의 색션 강의로 어느 총회 보다 풍성한 목회 정보를 얻도록 했다. 첫날 저녁 집회 강사로 나선 최병락 목사는 예배 회복을 강조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 교회와 미국의 한인교회가 부흥을 꿈꾸며 부흥의 역사를 다시금 회복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한국의 선교 부흥을 이끌었던 선교사들의 눈물 어린 헌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 바로 그 당시 선교사들이 쏟아 부었던 순교의 헌신과 복음 전파의 열정을 드러내야 할 때"라고 독려했다. 최 목사는 또 "가장 어렵고 매마른 시기에 이 땅에 부흥이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도 주께서는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우리의 예배와 기도, 선교가 다시 회복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자"고 전했다. 40차 총회장 김경도 목사는 "이번 41차 총회는 1982년 총회가 처음 시작한 이곳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총회가 성장하고 강건하게 세워져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 것이 감사하다"며 "총회역사가 65년이 되었다. 1956년부터 2021년까지 총회 65년 역사가 정리되어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사'가 발간된 역사적인 순간"이라 말했다. 김 총회장은 "지금 미국과 한국등 모든 교회

가 위기 속에 있다. 총회가 기도하면서 교회를 살리는 총회, 교회가 살리는 총회되기 위해 우리총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5년간 구체적으로 성취해 나갈 목표와 실행계획을 세워나갔다"라며 "뉴노멀 시대에 우리 총회가 부흥의 계절을 맞이하도록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

(박준호 기자)



CBMC 차세대 청년 리더를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CBMC 차세대 청년리더를 위한 장학금 수여식

18명의 학생들에게 총 3만 6,000달러 지급

기독교실업인협회(CBMC 회장 강승태) 주최 차세대 청년리더를 위한 장학금 수여식이 18일(토) 오후 2시 예수 몬테소리 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장학금으로 심사를 거쳐 선발된 18명의 학생들에게 1인당 2,000달러, 총 3만 6,00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회 장학위원장을 맡은 안신기 목사는 이번 장학금 선발에는 42명이 지원해서 18명을 선발했다고 밝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 70%, 성적이 우수한 학생 30%를 각각 뽑았다고 밝혔다. 강승태 회장은 "오늘 장학금을 수여받은 장학생 한사람 한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린다"며 "오늘 장학금을 받은 자들은 CBMC가 차세대 리더로 일터 사역자로 선택한 자들이다.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오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학업에 열심을 다하고 사회봉사를 하여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을 때 후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자들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상자 중

최용준 학생은 "칼텍에서 공부했으며 졸업후 UC산타바바라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다"며 "앞으로 꿈은 양자컴퓨터를 개발하는 것이며 연구성과가 잘나와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과학자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배운것을 다른이들에게 줄수있는 자가 되고싶다"고 말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자는 아이작 리, 클로이 최, 최용준(이상 서울메디컬 후원 장학생), 신현미, 신현민, 최가인(이상 교민청 후원 장학생), 서진영, 맥스 서, 안주영, 안한나, 윤은지, 플라 주, 최예찬, 그레이스 강, 백성민, 김혜민, 유니스 최, 장욱(이상 한솔보험 후원 장학생) 등이 받았다. 한편 장학금 수여식전에 가진 1부 예배는 안신기 목사(장학위원장) 사회로 열렸으며 이봉우 회장(남가주연합회)이 기도했으며 한기형 목사(미주 CBS방송 대표)가 '빛의 사자로 살자(마 5:14-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리고 3부는 강승태 총회장 인도로 지회 창립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박준호 기자)

토랜스제일장로교회 특별한 수요기도회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시고 재산"

토랜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 특별한 수요기도회 마지막 날 기도회가 15일(수) 오후 7시30분에 열렸다. 고창현 목사 사회로 시작된 기도회는 문경남 장로가 기도했으며 구봉주 목사(감사한인교회 담임)가 "기업을 주소서(민 26:1-1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구봉주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계약을 맺으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연약을 맺으신다. 연약은 구약의 전유물이 아닌 신약에도 약속의 관계가운데 있다.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관계는 완전해진다. 언약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복이다. 복은 기업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목사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업이라는 기업을 주셨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자녀라는 기업을 주셨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사명이라는 기업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고 재산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기업되신 것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 번 우리인생을 달려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구봉주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동부장로교회 이윤규 목사 성경강해 설교집 무료 배포
동부장로교회(담임 김정오 목사)는 고 이윤규 목사 성경강해 설교집(총 42권)을 무료로 배포한다. 설교집을 받아보기 원하는 자는 전화 혹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 문의: (213)383-3261, 427030@gmail.com

월드비전국제대학교, 요한계시록 공개포럼
월드비전국제대학교에서는 라티노 신학교를 개교하면서 공개포럼으로 '요한계시록 공개포럼'을 7월5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평화교회(담임 김은목 목사)에서 개최한다. 강사는 최수일 교수(국제계시록 포럼 대표)
▲ 문의: (213)700-1802

이음음악회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회장 박재환) 주최 이음음악회가 26일(주일) 오후 5시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음악회는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성악 퀸텟 포르테 디 파드로, 김현수, 손태진이 출연한다. 음악회 티켓은 서울대 총동문회로 연락하거나 LA 밴디복스 서점에서 무료로 픽업하면 된다.
▲ 문의: (323)229-3369, (310)971-0534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세미나
소망사이버터 샌디에고 지부가 주최하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세미나가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담임 정상용 목사) ALC친교실에서 28일(화) 오전 10시30분 개최된다.
▲ 문의: (858)279-9191

뮤지컬 도산 LA공연
무대예술인 그룹 '시선'은 광복 77주년을 기념하여 '뮤지컬 도산'을 라미라다극장에서 오는 8월25일부터 28일까지 6회에 걸쳐 공연한다. 이번공연은 유료 공연이며 티켓가격은 성인 28달러, 학생 18달러이다.
▲ 문의: (213)500-5824



뮤지컬 킹데이비트는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은혜한인교회 창립40주년 기념 킹데이비트 공연

다윗의 생애를 담은 초대형 창작뮤지컬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창립40주년 기념 뮤지컬 킹데이비트 공연이 17일(금)부터 19일(주일)까지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에서 열렸다. 한기홍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5년 만에 뮤지컬을 공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께 존귀와 감사를 영광을 올려드린다"며 "이번 공연이 성도들에게 신앙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후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관객으로 찾아왔다면 공연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뮤지컬은 다윗의 인생 전체를 다룬 2시간 20분짜리 초대형 창작뮤지컬로 배우 120여명과 40여명의 스태프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전심을 다해 준비한 작품이다. 특별히 영어자

막을 선보여 타인종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18일(토) 오후 7시에 열린 두 번째 날 공연은 공연시작 전부터 공연관람을 위해 많은 관객들이 입장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관객들은 어린이부터 노인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했다. 다만 팬데믹 이후 처음 열린 대형이벤트여서 그런지 배우들의 대사전달과 원활하지 못했던 음향문제가 발생하여 1년3개월간 준비한 정성이 퇴색이 되어버린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토랜스지역에서 공연을 보러온 한 관객은 "모처럼 좋은 뮤지컬이 열린다고 해서 딸과 함께 찾아왔는데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음향문제로 공연의 후반부에는 딸아이가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토랜스제일장로교회 특별한 수요기도회에서 구봉주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제9회 미주청소년 정체성찾기 그림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호시랑선교회 주최 제9회 미주청소년 정체성 찾기 공모전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주역되길"

호시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 주최 제9회 미주청소년 정체성 찾기 그림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이 18일(토) 오후 2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미러를 센터에서 열렸다. 김영찬 목사는 "청소년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갖도록 글짓기와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기위해 공모전을 개최했다"라며 "공모전에 참여한 모든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미래를 위해 준비되는 주역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수아 박 목사와 한나 박씨의 사회로 시작된 시상식은 섹소포니스트 켈빈 박의 축하연주, 레나민 작가(Poet & Best Way Education)와 한정숙 미술작가(Artland)의 심사평, 유수연 ABC교육위원장의 축사가 있었

다. 이어 시상식으로 이어졌다. 시상식은 대상(그림, 글짓기 각 1명), 최우수상(글짓기, 그림 각 2명), 우수상(글짓기, 그림 각 3명), 장학생 1명, 심사위원장(그림 3명, 글짓기 2명), 인기상(글짓기, 그림 각 1명), 장려상(그림 24명, 글짓기 13명) 봉사상 1명 등 총 56명이 상을 받았으며 정창근 목사가 폐회기도 했다. 한편 시상식 전에 열린 1부 개회예배는 남승우 목사가 기도했으며 국민의례, 풀임 전도사 설교, 김영찬 목사 환영인사, 심상은 목사(OC교회회장), 김종대 목사(OC장로협회장) 초대 회장, 유우경 OC전도연합회 이사장이 축사했으며 이용훈 목사(OC목사회 부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적 지도력 높이고, 현실적 장벽 낮추고’ 예정 고신 헌법 개정안 공개
‘세습방지법 신설’ ‘불신자와의 결혼 지양 유도’ 눈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정) 고신(총회장 강학근 목사) 총회가 20일 부산 고신대(총장 이병수)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첫 권역별 공청회를 열고 지난 1년 9개월 여간 준비해 온 개정안을 공개했다. 한국교회 내 보수적 신앙 기조를 대표해 온 예정고신에서 교단 헌법개정이 이뤄지는 것은 2011년 이후 11년 만이다. 예정고신은 2020년 9월 열린 제70회 총회에서 헌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수십 차례의 분과별 모임을 거쳐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김세중 헌법개정위원장은 공청회 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과 원칙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적용 현장에서 공감이 안 된다면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교회의 영적 지도력을 강화하고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 장벽을 낮춘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공청회는 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조례 분과로 나눠 각 분과장이 개정안의 수정 배경을 소개하고 질의와 제안을 받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정위는 우선 출처와 이단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집회가 다수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 교회가 성도들의 영적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 조항에는 “다른 교회나 교파의 집회 참여는 반드시 담임목사나 당회의 허락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절기와 감사일을 구분해 헌법에 반영하는 수정안도 내놨다. 연중 성탄절 부활절 등 주요 절기와 추수감사절 등 감사일 외에 다양한 항목으로 ‘000주일’ 등이 양산돼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한다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총회가 전도와 복음사역을 위해 결의할 경우 한 주간을 기념주간으로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도의 결혼’ 항목에서는 신앙의 보수성을 강화한 것이 눈

에 띈다. 개정위는 ‘항존지에 있는 자의 자녀가 불신자와 결혼할 경우 당회가 그 직분자를 근신하게 하여 교훈으로 삼는다’는 항목과 ‘불신자와의 결혼이나 주일에 행하는 결혼식은 교회 앞에 광고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개체 교회의 변경’ 항목에서는 지속되는 ‘성도 수 감소’ 현실이 반영됐다. 개정위는 현행 ‘20인 미만’으로 정한 적용 범위를 완화해 ‘장년 교인 수가 10인 미만의 상태로 2년 경과 시 노회 결의에 따라 기도소로 변경할 수 있다’는 수정안과 함께 ‘기도소로 변경하기 어려울 때는 인근 다른 개체교회와 합병하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미자립교회가 사역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방지하기보다는 합병을 통해 교회가 존속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권징조례 분과에서는 ‘목회 세습’에 대한 신설 조항이 제시됐다. 개정위는 제50조 목사의 청빙 항목에 ‘위임목사 또는 전임목사가 은퇴할 시, 그 자녀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 당회원 수가 적어 재판이 불가능한 교회도 노회에 협조 당회원을 요청해 재판이 가능하도록 했고, 조순가정 증가 세태를 반영해 유아세례 문담 시 부모가 없더라도 당회 허락으로 세례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위는 21일 대구삼승교회(김익진 목사), 23일 남서울교회(최성은 목사)에서 각각 공청회를 진행한 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다음 달 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오는 9월 개최되는 제72회 총회를 통해 총대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헌법개정안이 제72회 총회에서 수락되면 내년 봄 각 지역별 노회에서 수의 과정을 거치고 이를 통과하면 총회장의 선포로 개정헌법이 발효된다.



20일 경기도 화성 주다산교회에서 열린 ‘살생부흥 넥스트 스텝 세미나’ 참석자들, 주다산교회 제공

하기도 받기도 싫은 전도 대체 어떻게?... “공감으로!”
한국교회 생존의 키워드 “다음세대와 지역사회 소통”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정) 통합총회(총회장 류영모 목사)가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정세의 변화, 그리고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연 정책포럼에서다.

첫 발표자로 나선 반길주 인허대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소장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파괴한 대표적 사례”라며 “불의한 전쟁 앞에 교회는 침묵하지 말고 정의를 실현하며 이를 통해 갈등의 땅에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규범을 파괴한 러시아의 행동을 지적하는 걸 정치의 영역에만 맡겨두는 안 된다”면서 “힘에 의해 국제 규범이 파괴되는 현실에 대해 교회가 냉철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와 함께 한국교회가 우크라이나 재건과 아픔의 땅에 희망을 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조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독일교회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교회의 국가의 관계를 짚었다.

그는 “정당 전쟁론을 비판하면서 ‘사구의 주류 기독교가 받아들이는 정당 전쟁론은 결과적으로 전쟁을 허용하거나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됐다’고 잘라 말했다.

정당 전쟁론은 양심의 가책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도덕적인 전쟁이 있다는 이론이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기원전 주장했는데 몇 가지 기준에 들어맞으면 정당 전쟁이라고 봤다. 훗날 교부 암브로시우스나 오거스틴과 아퀴나스, 루터 등이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주류 기독교가 지지하는 전쟁론으로 자리 잡았다.

이 교수는 “역사상 정당한 전쟁이라 부를만한 전쟁을 찾을 수 없다”면서 “모든 전쟁은 인간의 탐욕에 기인하고 많은 경우 전쟁을 신앙으로 합리화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견해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순간 신앙은 이데올로기화되고 평화 대신 갈등과 분열이 찾아온다”며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는데 있는 만큼 세상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살림’이 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리교 ‘3각’ 선교 협력의 장 세운다
광림교회, 아프리카 선교 허브 잡이어서 ‘광림미션센터’ 기공예배

지난 15일(현지시간) 잠비아의 수도인 루사카에서는 한국 감리교회 목회자들과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교사들, 잠비아 교계와 아프리카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뜻깊은 행사를 열었다. 바로 광림교회(김정석 목사)가 개최한 잠비아 광림미션센터(이하 미션센터) 기공 예배였다. 이철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설교자로 나서고 ‘잠비아 감리교회 찬양단’의 찬양 무대도 이어졌다.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세계선교부(GMGM) 위원장인 정희수 목사는 기공 예배가 갖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예배는 광림교회를 중심으로 한국의 감리교회와 미국의 감리교회, 잠비아와 아프리카의 감리교회가 하나가 되는 자리입니다. 미션센터는 선교 협력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정 목사가 이렇듯 의미를 부여한 이유는 우선 미션센터의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19일 광림교회에 따르면 미션센터가 들어서는 부지는 1만3220㎡(약 4000평)에 달한다. 건물은 5동이 나 된다. 채플, 의료센터, 교육센터가 만들어지며 선교사들이 묵을 게스트하우스도 들어선다. 광림교회는 이날 말 본격적으로 건축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 미션센터를 완공할 계획이다.

광림교회가 해외에 미션센터를 설립하는 건 잠비아가 처음이 아니다. 광림교회는 그동안 9개국에 10개의 미션센터를 세웠다. 특히 ‘모스크바 광림미션센터’는 러시아 감리교회와 고려인 교회가 연합하는 러시아 선교의 기지로 자리 잡았다. 광림교회 관계자는 “잠비아에 세워질 미션센터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도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션센터 인근에는 코카콜라 같은 세계적 기업의 공장, 한국인이 운영하는 기업도 있다”며 “직업이 없는 잠비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일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잠비아 루사카에서 열린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기공예배에서 단체 사진

이화대학교회는 1935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회로, 예배뿐만 아니라 교육, 봉사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장윤재 이화대학교회 담임목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내외 이웃을 위해 성도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모아 기부하게 됐다”며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과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2017년부터다. 김정석 목사는 당시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를 후원하면서 아프리카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듬해 그는 잠비아를 방문해 미션센터 설립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김 목사는 잠비아가 아프리카 8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영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에이즈와 조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도 잠비아에 관심을 갖게 만든 요소였다. 김 목사는 2019년 또 다시 잠비아를 방문해 조흔으로 삶이 망가진 청소년들, 에이즈로 투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다.

광림교회가 해외에 미션센터를 설립하는 건 잠비아가 처음이 아니다. 광림교회는 그동안 9개국에 10개의 미션센터를 세웠다. 특히 ‘모스크바 광림미션센터’는 러시아 감리교회와 고려인 교회가 연합하는 러시아 선교의 기지로 자리 잡았다.

광림교회 관계자는 “잠비아에 세워질 미션센터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도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션센터 인근에는 코카콜라 같은 세계적 기업의 공장, 한국인이 운영하는 기업도 있다”며 “직업이 없는 잠비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일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화여대 대학교회, 동해안 산불·우크라이나 피해 지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는 지난 12일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및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금 164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부활절에 이화대학교회 성도들의 감사헌금으로 마련됐으며,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 성금 798만원과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성금 842만원, 총 1640만원이 모금됐다. 대한적십자사로 전달된 성금은 경북·강원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 지원과 소실된 산림 복원, 우크라이나 피란민 인도적 지원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위로와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이화대학교회의 따뜻한 나눔 실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대한적십자사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과 인도적 위기에 놓인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전했다.



세중 예정고신 헌법개정위원장이 권역별 공청회에서 개정안 마련 과정과 의미 설명 중

Worldwide Church Directory: A grid of church listing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NY, NJ, Hawaii, and Mexico. Each listing includes the church name, pastor's name, and service times.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12)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며 항상 고맙고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 나는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더욱 힘이 나고 하나님께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 주셨음에 감사하며 선교의 여정을 지내 오게 하였다. 믿어주고 함께 해주신 목사님들, 눈물로 기도해 주신 권사님, 집사님들, 참 어려운 때에 힘이 되어주신 장로님들을 생각하면 나 혼자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함께 해 온 것이라는 확실한 자각이 든다.

선교는 협력으로 시작하고 협력으로 끝난다. 협력은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고, 삼위의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우리와 협력하여 이루어가신다. 그렇기에 협력을 제외하면 선교를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 입에도 삼위로 존재하시고 그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도전받은 하나님 나라 주권의 온전한 회복과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 선교이다. 모든 것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필요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셨고, 성령님의 오심이 필요하셨고, 가장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협력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말해준다. 선교의 모든 동역자는 이 점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선교의 역사는 불편한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진 수

많은 영웅적 사건들을 모범적인 것처럼 잘못 그려내는 경우도 있지만,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만큼 바람직하지는 못하다. 많은 영웅적인 선교사들의 전기는 잠든 영혼을 깨우고 나도 이렇게 쓰임 받고 싶다는 감동을 준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선교사들의 뒤에서 함께 영적 전투를 하며 물질을

보내서 후원하였던 이름 없는 성도들의 동역이다. 어느 선교 사에게나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교회가 그런 동역자들이 모인 교회였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였다가 말한다 (빌 1:3-4). 왜냐하면 첫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빌립보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이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선교 여행을 계속 나설 때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다. 당시는 교통의 불편과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몇 번 지원하다가 중단되었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의 감옥생활을 돕게 하였다.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아파서 죽게 되었다가 조금 회복된 후에 빌립보교회로

돌려보내며 써준 편지가 빌립보서이다.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선교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관계의 형성이다. 첫째는 서로 기도하는 관계이다. 바울은 빌립보교회를 위하여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하였으며, 빌립보교회는 바울이 어려움을 당

감사하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분들이 계셨다. 시카고의 트리니티신학교에서 목회학과 선교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다. 학교에서 가까운 하이랜드 장로교회에서 4년 동안 교회주일학교 전체와 특히 중고등학생들을 지도하는 전도사로 섬겨왔다. 본 교회에서는 우리가 선교사로 나갈 때까지 그 당시의 일반 교회처럼 선교사를 후원해본 적이 없었던 교회였다. 시카고의 북쪽 교외에서 조금 안정된 전문직을 가진 이민자들이 많은 교회였다. 점점 새로운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며 섞이는 발전하는 교회였다. 그러나 선교를 교회에서 가깝게 느낄 기회가 없었던 교회였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나

우시다면 저에게 성도들이 자원해서 선교헌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당회는 주일에 예배에서 설교하도록 허락하고 선교헌금을 작성하도록 도전할 기회를 주셨다. 당회는 월 300달러 이상이 작성 되면 그대로 후원을 하고, 그보다 적으면 교회의 일반 재정에서 채워 보내겠다고 결정하였다. 나는 주일에 설교하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정을 선교사로 보내시는가 말씀드리고 선교비를 개인적으로 약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렸다. 놀랍게도 약정액은 매월 300불을 넘어 성도들 모두 놀랐다. 교회는 약속대로 1차 임기를 마치고 돌아온 6년 반 동안 매월 300달러 이상이 모금되어 전액을 후원하여 주셨다. 그렇게 정기적으로 후원해

이다. 나는 많은 단기선교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런 단기 선교여행을 “어서오소 단기선교”라고 이름 지었다. 이런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진 것이다. 하이랜드교회에는 참으로 기도의 여전사가 계셨다. 박삼례 권사님이셨다. 우리가 파송 받은 후에 교회로 오신 본인도 파송 선교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 우리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벽과 철야기도를 통해 전적으로 기도하여 주신 박 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모른다.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모습을 생각만 해도 힘이 난다. 나에게는 뉴욕에 친구 김 장로님 가족이 있다. 자주 만날 수도 없는 분이지만 우리가 뉴욕지역을 방문할 때면 언제나 집에서 지내도록 초청하신다. 힘들게 세탁업을 하시는데 오랫동안 한 교회가 후원하는 것보다 많은 재정적인 후원을 하시면서도 티를 낸 적이 없다. 나는 그 가정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한다. 오늘 까지도 우리들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빌 1:6). 이것이 기도하는 관계,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다. 함께 한다는 헬라어 단어는 함께 코이노니아한다는 말이다.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복음의 전진을 가져오게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며 떠나셨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서 함께 하게 하신다. 오늘도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교회와 사람들이 있음이 동역의 기쁨을 더하게 한다.

dr.yongcho@gmail.com

협력이 해답이고 협력은 관계이다

하였을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서로를 위하여 간구하는 사이였다 (빌 1:19). 선교사는 교회와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파송 선교사와 후원이나 협력선교사로 구분하고 있다. 교회에서 자랐거나 사역하며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선교비의 상당한 부분을 책임져주는 교회를 파송교회라고 하는 데 이런 관계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협력선교사라고 할 때는 교회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일정부분을 후원하겠다는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선교의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교사는 후원하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쁜 일이 단되었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의 감옥생활을 돕게 하였다.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아파서 죽게 되었다가 조금 회복된 후에 빌립보교회로

는 선교회를 선택하고 당시 조영의 담임목사님께 선교사로 파송 받기 위해서는 선교비를 모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조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한 많은 봉사를 기꺼이 하였고, 특히 노인들을 위해 헌신적인 섬김을 하신 분이였으나, 해외 선교에 대해서는 아직 열리지 않은 분이셨다. 내가 선교비도 준비되지 않고 선교교나 나간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시는 것 같은 목사님은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라고 물으셨다. 선교회를 통해서 나가면 일반 교단의 선교사처럼 선교회기금을 다 주는 것으로 알고 계셨던 것 같았다. 나는 “교회에서 가능한 한 달에 300달러를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드렸다. 교회의 일반 재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일반 재정에서 어려

주시던 시카고 하이랜드장로 교회에는 교회의 정기후원 외에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주신 분이 있었다. 박순호 장로님은 의사로 섬기며 교회의 큰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우리 가정을 많이 사랑해주셨다. 필리핀에서 하루는 박 장로님 집이 불이 나서 많이 수리하기 위해서 호텔로 옮겨 생활하신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안타깝게도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달에도 빠짐없이 선교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선교부 재정 보고를 통해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몇 년이 지나 선교지에서 힘들게 지낼 때 “우리가 필리핀으로 휴가를 갈 테니 함께 일주일 휴가로 생각하고 바닷가 호텔을 예약해주세요”라며 연락을 하셔서 온 가족의 휴가를 보내게 해주셨던 일들은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추억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원 스토리 20강 /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출애굽기 - 민수기)

진설병 상

성막 안에서 유일하게 먹을 음식인 떡이 있는 곳이 바로 '진설병 상'입니다. 진설병 상은 두말할 것 없이 '말씀의 상'입니다. 성막 안은 모든 것이 정금으로 덮개도 가장 안쪽은 화려한 4가지 색으로 된 세마포 천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닥은 여전히 흙 바닥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막 안에서 자의로든 타의로든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죄 용서는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정결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안에서 생명을 위해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요 6:47-51).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범하지 않기 위해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시 119:9-11). 진설병 위의 떡은 매 안식일마다 바뀌어졌고 바뀌어진 떡은 성막 안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진설병상의 떡은 기름을 섞어(레 2:5) 반죽하여 만들었고 12개의 떡 위에는 유향 2병이 놓여있어 먹을 때도 항상 기름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향단

성막안 성소에 들어가면 제

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빛'입니다. 그리고 진설병 상의 떡 그 위에 의지하여 분향단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바로 '분향단'입니다(계 5:8, 8:3-5). 분향단 역시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과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막 11:22-24 / 약 1:6,7).

휘장

휘장은 무엇보다 직사각형의 성막 안에 두개의 정사각형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였습니다(출 26:31-33).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정해진 규례대로 들어와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법계를 지키는 그룹들이 수 놓아져 있는 휘장안 지성소에는 제사장이라해도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으로 갈라져 버림으로 (마

27:51 / 막 15:38 / 눅 23:45)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속죄소

'시은소'로 불리기도 하는 속죄소는 조각목을 정금으로 싸고 역시 정금으로 속죄소 두 끝을 쳐서 두 개의 그룹을 만든 '법계 뚜껑'입니다. 속죄소의 두 그룹은 그 날개들을 펴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열

법계가 '하나님의 공의' 를 품고 있는 것이라면

법계를 덮고 있는 속죄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다

굴로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내려다 보았고 모세는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출 25:22 / 민 7:89). 바로 이 법계 뚜껑이 법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드러내는 '십계명'과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의 징계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이며 '시은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마당만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을 통하여 제물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매일 성소 안에 들어가 향을 피우고 등대를 살피고 떡을 차려놓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일년에 단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날이 바로 '속죄일'

입니다. 오직 규례대로 선택받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레 16:1-19).

법계

이제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법계까지 왔습니다. 법계가 오기 위해서는 오직 한 문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막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

두멍에서 자신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정결케 한 후에 마침내 성막안 성소로 들어와 등대의 조명안에서 떡상의 떡으로 힘입어 분향단에서 기도를 드린 후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법계를 대면하는데 대제사장과 법계 사이에는 속죄소가 있어 대제사장뿐 아니라 백성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들고 들어오는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레 16:12-19).

법계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로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일을 법계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명하셨습니다(출 25:22 / 민 7:89). 그러므로 법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계시

를 받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법계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히 9:4).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신 5:27)라고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 돌판을 받으려 올라간 사이, 그 40여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반역했고(출 32:1-6) 모세는 그 두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법계 안에 두었던 것입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성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너희가 여호와와 백성을 죽였다'(민 16:41)고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가문에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게 하시고 법계 앞에 두라 하셨는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 열매'가 맺었습니다(민 17:1-8).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로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민 17:10)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바로 '반역의 표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패역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계가 '하나님의 공의'를 품고 있는 것이라면 법계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계를 말할 때는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공의가 모두 드러나는 것입니다. 속죄소 없이 법계만 있을 수 없고 법계 안에 있는 3가지가 없이 속죄소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계는 곧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법계가 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로 열린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그 법계가 상징하는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심으로 영적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캠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넷째 나팔 (계 8:12-13) 찬265장

요한이 보인 넷째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열심을 보여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해달빛의 1/3이 땅에 떨어집니다. 가공할 만한 초자연적 영향이 온 세상에 미쳐잡은 실제로 일어나는 천재지변일 수 있고 영적 권위의 추락 상을 보여줍니다. 둘째, 밤이 되어버립니다. 창조 전의 온 땅에 일어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침처럼 의를 상실한 마지막 때는 영적인 혼돈과 공

허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셋째, 그리고 세 가지 화의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세 천사가 불 나팔 소리로 땅에 있는 사람에게 임할 화를 예고합니다. 그 대상이 세상에 남은 사람들로 지목한 것은 이 재난으로 하나님의 잃은 의를 세우려는 그분의 열심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의 의의 백성입니다.

화 다섯째 나팔 (계 9:1-6) 찬331장

다섯째 나팔이 불 때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한 별이 나타나 세상에 있는 불행자들을 괴롭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일어난 특징은 무엇이었습니다? 첫째, 해와 공기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2) 사람의 생존의 주요 요인인 해와 공기가 해 침을 입어 이 땅의 무저갱에서 나온 연가로 오두원 족습니다. 둘째, 황충이 불행자를 괴롭힙니다. (3-5) 그

때 나타난 황충은 전갈의 권세로서 불행자에게 벌을 가합니다. 셋째, 죽음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6) 불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벌은 괴롭히기만 하고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불행자가 받을 지옥 형벌이 상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절대 보호로 인해 주를 찬양합니다.

수 마귀의 맹렬한 역사 (계 9:7-12) 찬 393장

그때 다섯 달 동안 사람을 괴롭히는 황충, 곧 마귀는 어떻게 활동합니까? 첫째, 그는 전마와 같이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7-9) 남을 괴롭히는 무기로 무장한 자을 주의 (인본주의) 운동의 맹렬한 기세를 생각하게 합니다. 둘째, 쏘는 무기로 불행자를 괴롭힙니다. (10) 그 무기 중 치명적인 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사탄의 생각과 이론과 속임수입니다. 이것으로 불행자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한 일에 구체적으로 갚으시는 의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셋째, 지옥사자의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11) 아바돈, 아볼 루온이란 명칭으로 나타난 황충은 지옥사자들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진신감주를 취해 음음으로써 이 악한 날에 주의 뜻을 세워나갑니다.

기과 유황으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는 진노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셋째, 회개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1) 그러나 더 기이한 것은 그 두려운 광경을 보고도 더욱 죄를 범하여 회개할 줄 모르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 무딘 세상에서 참된 회개의 복을 누립니다.

목 여섯째 나팔 (계 9:13-21) 찬 337장

천재지변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의 재앙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첫째, 이 재앙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13-16) 결박된 네 천사의 활동의 시한과 목적과 방법이 명시됨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서 움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둘째, 사람 1/3이 죽임을 당합니다. 불행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전쟁 무기에서 발생하는 불과 연

기와 유황으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는 진노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셋째, 회개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1) 그러나 더 기이한 것은 그 두려운 광경을 보고도 더욱 죄를 범하여 회개할 줄 모르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 무딘 세상에서 참된 회개의 복을 누립니다.

금 한 강한 천사의 맹세 (계 10:1-6) 찬 161장

종전, 정죄를 받는 불행자들의 심판과 달리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한 강한 천사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첫째, 심판 천사의 외침은 그리스도를 생각해 합니다. (1) 구름을 입고, 무지개로 둘러싼 머리가 있고, 해 같은 얼굴과 불기둥 같은 불은 일 찌기 요한이 본 인자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구원주이신 그리스도는 심판주도 되시는

주권자입니다. 둘째, 그에게 온 세상에 심판을 단행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3-5) 셋째, 속히 구속의 마침이 실행할 것을 맹세로 보여주었습니다. (6)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를 행해 모든 심판이 경문대로 실행될 것을 맹세하심은 자기 백성의 구속이 일점일획 변함없이 성취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토 일곱째 천사 (계 10:7-11) 찬 97장

마지막 나팔 재앙은 심판의 긍정적인 특징을 보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짐을 선포했습니다. (7)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신 복음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둘째, 복음의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8-9) 구속은 불행자를 심판하지만 택한 자로 확실하게 그 구속을 누리게 하십니다. 구속은 음식 먹듯이 말

씀을 마음에 깊이 받아 깨달을 때 효력을 가져옵니다. 입에서 쓰나 속에서 단 것처럼 말씀을 순종할 때 고난이 따르나 인내하며 나갈 때 사랑의 체험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눅24:32) 셋째, 예언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11)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건널 수 없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 시대에 힘써 전합니다.

기독교 교육 (7)

역사와 기독교교육의 필요성(2)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독교교육은 역사가 그 역할과 가치를 증거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역사는 운전할 때 후방을 살피는 거울과 같습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앞을 잘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살피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차선을 바꾸려고 할 때는 더욱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시로 과거를 반추해야 합니다. 미래를 향해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과거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교육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전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들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교훈을 바르게 전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성경, 신조, 징계를 바로 세우는데 힘썼습니다.

초대교회의 있어 교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공식적인 교육과 비공식적 교육을 모두 중시했습니다. 가정은 여전히 성경진리의 학습과 적용에 있어서 주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교사로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교회 역시 가르침과 배움의 장이었습니다. 모든 목회자는 "가르치기를 잘 해야"(딤후 3:2)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에데사, 니시비스 등의) 교리학교(catechetical school)와 새신자 학교(catechumenal school)의 등장으로 부모들은 자녀교육의 부담과 책임을 덜게 되었습니다. 교리학교들은 문답식 교육방법을 사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사유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새신자 학교들은 새로운 회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인 회심자들은 기독교 진리에 관한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의 교제권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새신자 학교를 거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감독과 사제들이 교리학교와 새신자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2세기부터 5세기까지 교회의 교사들 가운데는 저스틴 마터, 터툴리안, 오리겐, 아타나시우스, 유세비우스, 크리소스톰, 제롬, 어거스틴 등이 유명합니다. 나중에는 평신도들이 교사가 되어 가르치는 일을 맡기도 했습니다.

313년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으로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었고, 380년 데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화된 후 교회의 교육은 성직자나 수도사가 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소수의 지도자들이 평신도들의 영적인 훈련에 관심을 갖고, 문법, 논리학, 수사학, 수학, 기하학, 음악, 천문학 등의 교양과목들을 교육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기독교교육에 있어 가정이 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자녀교육을 교회에 떠맡겼고, 교회는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제도화된 교회들은 정부와 결탁했고,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는 교사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교육은 피폐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세기 동안 개인들의 신앙에 영적, 교육적 암흑기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일반인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학교들이 등장했습니다. 교부들이 남긴 문서들을 모아 도서관의 형태를 이루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던 스킴라철학

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암흑기 후 14세기에 들어 그리스-로마의 고전을 재발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문예부흥(Renaissance)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예부흥이 기독교교육을 직접적으로 장려하지는 않았지만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의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육을 강조했고 교육자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보편적인 교육, 자국어어를 사용한 교육, 성직자 훈련을 지지했습니다. 대학교를 세워 자신들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교과과정은 기독교의 진리에 관련된 질문과 대답을 모아놓은 교리문답(catechism)이었습니다. 성경을 주 교재로 사용했지만, 어떤 교회는 교리문답을 강조하여 본의 아니게 성경의 역할을 약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누구나 스스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읽고 쓸 줄 알아야 한다고 믿었으며, 신앙생활 가운데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를 각자 확인해야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정치 지도자들이 소년소녀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중등학교 대학교를 설립하여 인문학과 종교학을 가르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교육자들 가운데는 에라스무스, 마틴 루터, 필립 멜랑크톤, 존 칼빈, 존 나스, 윌리엄 쾰리 등이 있었습니다.

16세기 후반에 들어 유럽 열국은 미국을 식민지화했습니다. 식민지 시대 미국의 교육은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철학을 반영했습니다. 반면에 어린이 교육을 강조한 그룹과 비종교적인 교육을 강조한 그룹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오늘날 공립학교의 선구자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기와 종교개혁 이후의 시기에는 초등교육이 자국어로 행해졌습니다. 성경이 모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모두가 성경을 스스로 공부하고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목회자가 될 사람들은 성경을 바르고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게 많은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근대에 들어 영국 글로스터의 저널리스트였던 로버트 레이크스(Robert Raikes, 1736-1811) 같은 사람들로 인해 새로운 종류의 교육기관인 주일학교가 생겨났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읽기, 쓰기, 산수,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주일학교의 설립은 하나의 운동이 되어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1785년에는 주일학교가 미국으로 소개되어 침례교와 감리교에서 기독교교육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침례교는 주일학교를 활용하여 성장의 기적을 이룬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기독교교육은 그리스도와 교회 성장에 중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기독교교육의 역할이 약화된 것을 봅니다. 기독교가 중세 암흑기를 다시 겪지 않고 재도약하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교육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재실현해야 합니다.

jonk@dbu.edu

2022년 성경 암송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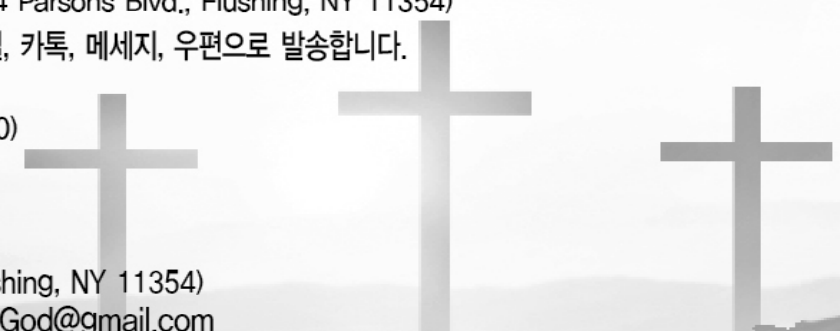
최우수상: 상금 \$1000과 메달 및 상장
한국어부(영어부 동일)
▶ 1등상: \$500
▶ 2등상: \$300
▶ 3등상: \$150
▶ 장려상: 0명 - 상품
▶ 최연소상과 최고령상: 상품 및 상장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인간 언어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는 일이며 기도 생활을 더 확고하게 해 줍니다. 성경을 많이 자주 암송 할수록 바로 내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확신 있게 서 있을 수 있는 성경 암송 대회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권합니다.

- 일시**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 장소** 미정(추후 발표)
- 참가 자격** 한국어 - 미국 내 한인 교회(EM 포함) 및 한인 기독교 단체 소속(연령 제한 없음)
영어부 - 미국 내 한인 교회(EM 포함) 및 한인 기독교 단체 소속 재학생 (초등학교 - 대학원)
- 암송 성경책** 1. 한국어 성경 : 개역, 개역 개정, 새번역 중
2. 영어 성경 : NIV, KJV(or NKJV) 중 택일
- 신청서 제출처** The Lord's Table Mission USA (주소: 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 신청서와 암송 범위는 연락 주시면 곧바로 이메일, 카톡, 메세지,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참가비** \$30 (식사와 간식 및 사무비 - 7월 30일 이후 \$50)
- 신청 마감** 9월 10일 우편물까지
- 문의처** 주님의 식탁 선교회 (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T. 347-559-3030, 718-886-3730, appa2God@gmail.com

공동주최 : 주님의 식탁 선교회 **중앙장의사** 주관 : 하늘가족
광고후원 : 뉴욕교회협의회, 단비기독교TV, CTS뉴욕, KCBN 미주기독교방송, 국민일보 USA, 미주크리스찬, 복음뉴스, 아멘넷, 뉴욕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상품후원 : 뉴욕교회 (회장: 김희복 목사), 뉴욕교회협의회 (김일태 이사장), 미주예장합동 (회장: 안재도 목사), 펠릭한인회 (오대석 목사)
행사후원 : 뉴저지평화기도원 (김중철 원장), 뉴저지연하수 (대표: 김 기) *후원 하실 분은 연락주세요

GOD IS LOVE



인/터/뷰

시라큐스 한인교회, KWMC 공동의장 지용주 목사

말씀과 기도로 비전을 따라간 결과 “선교적 교회”

▲ 시라큐스 한인교회가 난민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난민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지난 2007년 북한에서 온 난민 6명을 만났습니다. 미국에 난민으로 들어온 이들의 통역과 정착을 도우면서 우리는 시라큐스가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들이 정착하는 대표적인 도시의 하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제게 알게 하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5-7절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서남북 원방에서 땅끝에서 내 백성들을 보내 주리 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에 와 있는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그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곳, “미국이 선교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 구속의 역사 안으로 인도했던 보아스처럼 이들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보아스 프로젝트(The Boaz Project)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여름 교회 청년들의 수고로 직접 전산실을 만들고, 2008년부터 난민들을 대상으로 전산교육과 이후 영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학기마다 2개의 반으로 나누어 각각 10명씩 총 20명의 난민 학생들과 학기마다 10주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개강하기 전에 모든 스태프들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훈련을 받습니다. 첫 번째 학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주제로, 두 번째 학기에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여 교육을 준비합니다. 매 수업 때마다 먼저 이 말씀을 토대로 준비한 말씀 묵상 시간을 가진 후 수업을 시작합니다.

교회로 온 난민 친구들은 수업을 통해 MS 오피스, 인터넷

가 되어주기 위해 Clothing Drive 및 Picnic 시간을 갖기도 하고 교회 특별예배에 초청하여 함께 예배도 드립니다. 우리 노회의 여러 교회들도 그들이 모은 의류 등을 가져다줍니다. 저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한 보따리씩 들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한편, 여름에는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성경학교를 합니다. 지난 2010년 여름부터 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로다이 스트리트(Lodi Street)로 나아가 그곳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여름성경학교를 펼칩니다. 지역교회를 빌려서 난민 어린이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 그리고 이 지역의 미국 빈민층 어린이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캠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며, 캠프 마지막 날에는 5일 동안 배웠던 말씀을 토대로 1:1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

그러나 우리가 늘 사랑으로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애쓰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유 없이 다가가 베푸는 사랑 때문에 우리 교회를 좋아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리지만 그들이 속했던 이슬람교에서, 힌두교에서, 불교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지요. 라이드가 항상 필요한 그들을 위하여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오는 시라큐스 날씨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낯은 밴과 교인들의



지용주 목사

러싱 지역에서 중국인들을 위한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Lodi summer camp를 통해서도 해마다 참석하는 150여 명의 어린이들 중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그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열매도 있습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여 함께 섬기는 동안 세대와 세대가, 그리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한, 영어권 청년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족이 자신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뿐 아니라 같은 세대(어린이)가 자신들의 세대(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모습이 “Them to them”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령을 초월한 모든 교인들이 우리 이웃에 와 있는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에 대해 바른 관점을 갖게 되었고, 기쁨으로 함께 섬기는 동안 자연스럽게 선교적 교회가 된 것이요. 그리고 교인 중에는 자신이 갖고 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새로운 기업을 통해, 삶의 일상을 통해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이지요.

▲선교적 교회의 모델로서 목사님 교회가 감당한 특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앞으로 한인 교회들과 미국 교회들이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델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시작한 사역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교회가 가져야 할 비전을 주셨고(이사야 43:5-7),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동안 선교적 교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이웃에 와 있는 세계 열방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즉 미국이 선교지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 와 있는 열방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이 되었습니다.

(16면으로 계속)

“보아스 프로젝트” 북한 난민을 시작으로 모든 난민들을 섬기는 사역 감당 “땅끝에서 내 백성들을 보내 주리라”는 말씀대로 “미국이 선교지”

▲ 난민들은 주로 어느 지역 분들이며, 그 난민들을 위하여 어떠한 일들로 사역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라큐스에는 60여 개국에서 온 난민들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수단, 소말리아, 라이베리아, 우크라이나, 쿠바, 버마, 콩고, 부룬디, 캄보디아, 브라질, 르완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베트남, 중국, 부탄, 아르메니아, 시리아 등지에서 온 난민들이 거주 중이며, 이 중 버마, 부탄, 소말리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난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시리아를 비롯하여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지난 15년간 40여 개국에서 온 1600여 명의 난민 및 이주민들을 섬겼습니다.

및 이메일 사용, 동영상 제작 등을 배우고, 영어수업을 통해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모든 학생들은 1:1로 배정된 보조 교사(TA)와 함께 수업에 참여하여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난민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매 학기 개강예배, 종강예배를 통해 난민 학생들과 초청 받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종강 예배 때는 예배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모든 민족, 백성, 방언, 열방이 함께 드리는 하늘나라의 예배와 같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외에도 매 학기마다 이들과 함께 친

합니다. 해마다 참석하는 150여 명의 어린이들 중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오랜 시간 난민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극도의 고통스러운 삶의 경험 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난민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난민들은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반응을 보이거나, 어떤 경우는 자신들의 종교를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시도할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함께 협력하던 시라큐스 지역의 난민 구호 단체들로부터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함께 협력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매 순간이 영적 전쟁터인 셈이지요.

차로 늦은 밤 시간까지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안전을 위하여 기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교회가 120명 규모에 반 정도가 유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모든 식사 준비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재정이 빠듯합니다. 그러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지난 15여년 동안 한번도 사역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는 참 놀라웠습니다. 북한 난민으로 왔던 친구가 우리의 도움을 대학을 진학할 수 있게 되었고, 천안문 사태로 인해 중국에서 정치적 난민이 되어 미국 시라큐스로 오게 된 쩌우 형제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신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의 지원을 통해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지금은 맨하탄/플

이 사역을 하는 기간에는 전 교인의 80% 이상이 다양한 방법과 역할들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성경학교를 섬기는 우리 Junior Staff들은 자기들의 눈높이로 아이 디어를 내고 준비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수업 준비할 수 있게 만듭니다. camp 기간 중에는 함께 난민 어린이들과 수업에 참여하여 친구가 되어 주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난민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초청하는 시간에는 이 Junior staff들이 함께 참여하여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놀랍습니다. 함께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실지 그 마음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Them to them”이라고 하면 그 나라

담임목사 청빙

오하이오 에쉬타블라지역에 소재한 에쉬타블라 한인교회(초교파)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실 담임목사님을 모십니다.

지원자격

- 1. 정규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으로 목회 경험이 있는자
2. 미국거주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3. 한국어와 영어 소통이 가능한 분

제출서류

- 1. 이력서
2. 본인 및 가족소개서(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포함)
3. 최종학위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각 1부(사본)
4.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동영상 2회분
5. 추천인(목회자 only)2명이상

제출처

이메일: sddkim206@gmail.com
문의 및 연락처: (440)319-4596 | (440)822-9390
우편메일: 2300 Austingburg Rd., Ashtabula, OH 44004

기타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마감: 2022년 8월30일

에쉬타블라 한인교회

2300 Austingburg Rd., Ashtabula, OH 44004
koreanashtabula@gmail.com

생명의권화

제24기 상담봉사원 훈련 세미나



생명의 전하는 동포들이 이인생활에서 겪게되는 고민, 즉 갈등과 좌절 그리고 슬픔과 괴로움을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어주며 삶의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주는 어려움에 항상 곁에 있는 친구입니다. 팬데믹 시대를 살며 더욱 힘들어 하는 동포들을 위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상처받은 이웃의 참된 친구로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상담역을 담당하기를 원하는 이들이거나, 본인의 상처나 아픔과 고통을 추스르는데 전문가의 조언을 원하는 이들을 위하여 전문 강사님들을 모시고 상담 봉사원 훈련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설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권유합니다.

- 장소: 미주평안교회 (임승진 목사 시무) 교육관 (213)381-2202
170 Bimini Pl., LA, CA 90004 (Vermont 1가와 27로 진입)
신청주소: P. O. Box 741077 Los Angeles, CA 90004
* Check payable to 'Shalom Life Line' (수표발행시)
신청전화: (213)480-0691 (먼저 전화로 등록하세요)
강의시간: 매주 화, 목 오후 7시 - 9시 30분까지 강의
참가비: 7월 10일 전에 전화로 신청하고 우편으로 등록하는 자는 \$50
부부신청은 \$80 그 이후에 신청자는 \$70, 부부신청은 \$120
(목회자나 신학생은 \$30 부부신청\$50)
모집인원: 선착순 30명
상담전화: (213)480-0691(영육구원) [매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Table with 5 columns: Date, Day, Topic, Speaker, and Seminar Name. Rows include dates from July 19 to August 25 with topics like '개강예배 및 Orientation', '팬데믹시대의 불안감 스트레스 치료상담', '인간관계 훈련의 이론과 실제', etc.

인/터/뷰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41차 총회장 이행보 목사

“총회장은 섬기는 직책,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총회를 섬기겠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10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열린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에서 이행보 목사(내슈빌연합 침례교회 담임)가 총회장에 선출됐다. 본지에서는 이행보 목사와 서면을 통해 총회장으로 당선된 소감과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보았다.

▲ 총회장에 당선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저보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교단에 많으신데 어쩌다 보니 경선에 나오게 되었고, 경선에서 제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총회장들이 본을 보여주셨듯이 총회장은 섬기는 직책임을 늘 잊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에 의지해 1년 동안 총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 총회장 임기동안 SBC 한인총회에 대한 비전은?

SBC 한인총회는 SBC Vision 2025에 맞춰 세운 CKSBCA Vision 2027이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시작해 “교회를 살리는 총회, 교회가 살리는 총회”가 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펼칠 9개의 비전을 이루어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두 가지 비전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비전1은 SBC IMB를 통해 50명, 총회 해외 선교부를 통해 20명의 전임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내년 5월까지 적어도 올해 목표인 IMB선교사 10명, 해외선교부 선교사 4명을 파송하기에 힘쓰겠습니다. 비전 2는 미국

에 15개, 캐나다에 10개, EM 5개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목표인 미국에 3개, 캐나다에 2개, 영어권 교회 1개를 개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교단에는 훌륭한 인적 자원과 물질 자원이 있습니다. 이들을 잘 연결하고 힘을 모아 이 비전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 총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한 목회자란 무엇인지요?

행복한 목회자라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목회에 성공해야 행복한 목회자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한 목회자 앞에는 어떤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행복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자신이 복음을 따라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습니다. 사죄의 은총과 영생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보기에 고난의 목회를 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17]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

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빌 2:17-18) 구원을 통해 교회에서 교인들 누구나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 총회기간동안 가졌던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작년 내쉬빌 총회 때 갖지 못해서 아쉬워했던 목회자 자녀들(유초등부 자녀와 청소년 자녀)의 발표회인 ‘청소년 축제’입니다. 3일 총회 기간 동안 배우고 연습했던 노래와 춤, skit(짧은 연극)을 총회 마지막 날 밤에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부모님이 알지 못했던 자녀들의 마음을 발산하는 시간이고 자녀들의 눈에 비친 목회자 부모님의 모습을 그려낸 스킷을 통해 교회에서 교인들 앞에서만 좋은 목회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자녀들 앞에서도 좋은 부모로서의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녀들이 목회자로서 겪는 부모님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자녀들에게 완전하지 않아도 여전히 부모님들을 사랑한다는 고백들이

참석한 목회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마지막 각 가족별로 서로 축복기도해 주는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 침례교 총회가 타교단 총회와 차이점중 하나가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총회기간 진행했던 유스 프로그램과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침례교 총회 기간 중에 진행하는 유스 프로그램과 어린이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을 맡아주시는 김제이 목사님(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의 꾸준한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지난 32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진행해주셨습니다. 그러다보니 처음 총회 때 어린이로 부모님을 따라와 총회 프로그램에 참석했었는데 어느덧 대학생, 사회인이 된 목회자 자녀들이 총회에서 교사로 스텝으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 간에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의 관계들이 형성되어 매년 총회를 기다리지게 하고 부모님들이 자녀들 때문이라도 더 총회에 참석하는



이행보 목사
계기가 되었습니다.

▲ 총회에 대한 목사님의 바람과 목사님의 목회철학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총회에서 인준된 “CKSBCA 비전 2027”이 앞으로 5년간 실행이 될 것입니다. 총회가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총회에 속한 교회들이 힘을 모아주시어서 “교회를 살리는 총회, 교회가 살리는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목회철학은 마태복음 22장 37-40절에 근거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포스트모던 시대로 모든 것을 동등하게 여기는 상대주의, 보편 진리의 존재 및 인식 가능성에 대한 회의, 전통적인

권위에 대한 거부, 모든 것의 공존을 추구하는 다원주의, 개인 경험의 중시 및 그에 따르는 개인중심주의를 살아가는 새로운 변화와 환경 속에서 이제 교회는 세상과 잘 소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 소통을 사랑에서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오늘 시대의 사람들에게 통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험하는 수준”까지 나아가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사회적 책임과 실천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박준호 기자)

지용주 목사 인터뷰

(14면에서 계속)

선교를 하러 어디 먼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이웃에게 나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선교지라는 관점에는 미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 뿐 아니라 이곳 미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인 교회들이 우리의 이웃을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어느 특정한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가지만, 정작 그 나라에서 와 있는 우리 이웃들은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을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자체가 단순한 선교사 파송 기관이 아닌 선교를 이루어가는 Platform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미국 교회들은 현재 너무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한인 교회가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9년 우리 교회의 사역을 늘 관심 있게 보았던 같은 노회 소속의 the First United Church of Fulto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Fulton은 시라큐스에서 약 한 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다민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하던 중 각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

한 여성성경학교를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미국 교회들이 그러하듯 Fulton 교회 역시 교인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노년층이었고, 40여 명의 교인만으로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노회를 통해 우리 교회 사역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목사님께서서 우리 교회를 떠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와서 그 지역을 위해 여성성경학교를 열어야겠다는 요청 하셨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꿈속에 나타나 “이곳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행 16:9)고 했던 마케도니아 사람의 음성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요청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Fulton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함께 여성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그 순간의 감격과 기쁨도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후에도 Fulton church는 우리 교회 예배에도 함께 참석하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도 함께 초청하여 은혜를 나누고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는 꼭 해외 또는 먼 지역으로 가서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이곳에 있는 미국 교회들, 신앙을 잃어버린 이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선교입니다. 우리는 미국 선교사들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제 연어가 되어 돌아온 이 땅에 온 이주민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한인교회들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함께 협력을 이루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 이번 KWMC 공동의장으로서의 소감과 선교대회에서 바라시는 점이 있으신지요?

특히 이번 선교대회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의 승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다음 세대(영어권)를 향한 문이 열리고 그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과 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고 Pandemic으로 인해 조금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지만 다양한

14 Track를 통해 선교의 여러 측면을 함께 배우고 나눌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같은 영역을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와 선교사, 사역자들의 Networking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미주 한인교회가 이러한 변화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의 생생한 현장을 함께 경험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선교를 향한 열정과 도전이 보다 바람직하게 전개되며, 이를 통해 더욱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번 집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재상 기자)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3.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4.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5.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 목회전공
- + 선교전공

2022년 봄학기 온라인 수업일정

1월10일 - 3월6일
 DI8310 History of Christian Mission (기독교 선교역사)
 *** 3/7/2022-3/13/2022 (봄방학)
3월14일 - 5월8일
 DI8180 Cross-cultural Leadership Development (타문화 지도력개발)

2022년 여름학기 수업일정

5월23일 - 7월17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 D.Min in Ics.
 PM 8610 Pastoral Counseling (목회상담)
 for D.Min in pastoral

5월23일 - 7월17일
 DI8150 Contextualization (상황화)

한국어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입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seminary.grace.edu

총장: Dr. Drew Flamm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E-mail: gtskoreanstudies@grace.edu 카톡 ID: KoreanGTS
 대표전화: 574-372-5100 (ex 6335), 574-334-7980(한국어)